

장학월보

2010
제203호(통권422호) **1**

- 장학특집 /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 교육정보 / 2010달라지는 경남교육
 - 건강상식 / 여성의 건강관리



당신의 **나눔**

누군가의 **행복**

나눔은 행복투자입니다
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

ARS기부 060·700·1212 기부상담 080·890·1212 <http://gn.chest.or.kr>

사랑나누기

한 올 한 올, 당신이 1%를 나누면
누군가에게는 100%의 행복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돌보기

부모와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보호와 양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 컴퓨터 및 학습 도서·교재,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대학 학자금, 야간요보호아동통합지원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생각 바꾸기

사랑의 열매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 대여,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사업, 경로당유류보내기, 저소득 어르신 기저귀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복지 누리기

장년층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져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는 건강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사업, 경로당유류보내기, 저소득 어르신 기저귀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웃게 만들기

각 가정의 행복이 모여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이룬다는 믿음으로 저소득층 월동주부식 및 난방비, 명절 위문금 지원사업, 성폭력 및 성매매 유입 예방 교육,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사업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웃사촌 늘리기

이웃과 이웃이 단절된 도시와 이웃이 떠나버린 농어촌을 위해 사랑의 열매는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지역사회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농어촌 시간복지등 복지 소외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이동벨레방 차량운영,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차량지원, 사랑의 TV 지원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외된 분들에게 새로운 이웃사촌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해외 마음 나누기

쓰촨성 지진피해 장애인재활센터 재활기기 구입 지원등 사랑의 열매는 최빈국 및 해외등도 말집지역에 우리의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눔 참여방법

아주 쉽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인데요, 일하다 보면 바빠서...”

매월 정기기부로 정성어린 성금을 자동이체하시면 바쁜 일상 중에서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도 기부가 된다고?”

웨어마트의 도시락, 삼각김밥, 제주삼다수, 미스터피자, KB포인트카드 등 매출의 일부가 기부되는 나눔상품을 찾아보세요!

“모을수록 사랑이 커진다면요?”

포인트나 마일리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모을수록 커지는 사랑, 이젠 클릭으로 나눔을 실천하세요 ^^

하나, 사랑의 열매 나눔페이지로 간다.

둘, 포인트 기부 페이지를 열고 기부 가능한 카드를 확인한다.

셋, 아낌없이 나눈다.

※ 포인트 기부가능 카드 :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S-OE 포인트

※ 기부 가능한 포인트는 변경 가능합니다.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08년 배분현황 Total : 8,020,916 (단위 : 천원)



2008년 모금현황 Total : 5,244,599 (단위 : 천원)



사랑의 열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gn.chest.or.kr>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0. 1

제203호(통권 422호)



02 권두언
04 장학현장
06 교육칼럼
08 특집 /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29 전문가 초대석

33 수업기술 나누기

40 교육정보

44 이색 교육현장

56 참여마당

65 향기나는 서가

69 지상갤러리

• 신년사 / 교육감

- 2010년 새해의 경남교육 / 박춘호
- 971개의 색다른 교육과정 / 김영희
- 자여 자율마당에 싹틔운 실력나리, 생각달래 / 강동률
- 나누리(Na-Nu-Ri) 약양교육 / 김경원
- 교양과능력을 갖춘 배영 어린이신사·숙녀 교육과정 운영 / 윤갑석
- 사랑과 창의로 매진하는 ACE 사천 교육 / 황추기
- 교육공동체의 아름다운 동행 '호계 명문교육 7대 프로젝트' / 전광숙
- Brain up! 6품제로 명품 인재육성 / 전창수
- 수준별·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꿈을 찾아 가꾸고 완성하는 일류 오마이 육성 / 하영식
- 과목별 성취목표도달을 지향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정재표

• 건강상식-내 가슴이 찢릿하게 아프다면 / 장석원

• 연금상식-부조급여(사망조위금) / 박진영

• 함께 꿈꾸는 성공적인 수업을 찾아 / 박영란

• 좋은 수업은 교사의 생명 / 이학렬

• 시간축 사고기법과 함께하는 상상여행 / 조선자

• 2010. 달라지는 경남 교육 / 이병만

• 상해한국학교 / 김현수

• 함께 만들어 가는 연극수업으로 창의 쑥쑥! 감성 쑥쑥! / 김정숙

• 생활 속 수학으로 생각을 열어오 / 장인환

• 중앙 SWEET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행복한 방과후학교 / 김인호

• 몸튼튼! 마음튼튼! 의령어린이 / 김영슬

• Samsung Volunteering Geoje 와

함께한 Let's know the World / 손정중

• 교 원 - 사랑하는 섬마을 할머니 제자님들께 / 김혜영

- 한뎬에 태난 것만 해도 축복고 행한 것입니다 / 황시철

• 학부모 -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 / 노정숙

• 학 생 - 점심시간 / 강소혜

• '선생님 당신이 희망입니다.'을 읽고 / 강혜영

• '뜨거운 관심'을 읽고 / 조창발

• 소매물도 / 하정용

▶ 표지사진 - 김형기(삼계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2월호 모집 기간 : 2010년 1월 16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0년 1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 : 초등교육과정 임성택 • 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김주수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배정철

• 편집위원 : 김만호, 박재철, 박성년, 전미화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신년사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경인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지난해는 세계적인 경기 한파와 더불어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지자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가족들은 경남교육을 믿고 독려해 주신 점을 깊이 느끼며, 교직자의 소명에 더욱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인류 보편적인 삶의 목표인 행복을 교육으로 실현하기 위해, 2008년에 『행복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2009년은 행복교육 뿌리 내리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는 신념을 가지고 추구했던 경남교육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많이 맺었습니다. 이는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위해, 힘을 합친 도민 여러분과 소임을 다한 우리 경남 교육가족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참된 인간 교육을 교육의 궁극으로 지향하며, 초문명의 미래 세상을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정신세계를 넓히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효제(孝悌) 사상」에 바탕을 둔 예의범절 교육으로 바른 덕성을 함양하고, 경남의 사회적·지리적 취약점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개인의 무한한 꿈과 성장동력을 길러주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로 길러가겠습니다.

2010년 우리 경남교육은 문명이 고도화된 미래의 지구촌에서 국제 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의 교육지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 ▶ 사랑이 가득한 덕성 교육
- ▶ 소질을 살리는 인재 교육
- ▶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 교육
- ▶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 등

4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먼 미래 사회를 조망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도민과 교육 공동체의 협력하에 학교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실천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에는, 교육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본청과 각 교육기관에서는 국민교육의 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교직원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공동체와 힘을 합쳐 씨를 뿌리고 정착해 온 행복교육이 꽃 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학생들이 살아갈 초문명의 시대에 대비하고 지구촌의 인재 양성에 노력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유수의 선진교육과 어깨를 나란히 할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로 갈수록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는 민족이 있을 수 없고 국가의 존립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초문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과 전통교육의 조화를 잘 이루어 국민과 국가의 동량을 길러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한 우리 교육가족들의 노력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지자체에서도 대동단결의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운의 경인년 새해에는 항상 넉넉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경남 교육 가족과 함께 기원드립니다.

2010년 새해 아침

경 상 남 도 교 육 감



01—



02—



04—



03—



05—

- 01 함안교육청 - 함안교육청 Wee센터 개소식
- 02 경남유아체험교육원 - 체험실 활동 모습
- 03 김해도서관 - 평생학습 작품발표한마당
- 04 마산교육청 - 수업연구동아리 실적물 관람
- 05 사천교육청 - 학교폭력 예방교육



06—



07—



09—



08—



10—

- 06 창원교육청 - 사랑의 김장 담그기
- 07 하동교육청 - 찾아가는 과학캠프
- 08 함양교육청 - 초등풍물대회 모습
- 09 창원교육청 - 복지시설방문 사랑의 후원금 전달
- 10 마산교육청 - 영재교육원 선발 3차 전형

2010년 새해의 경남교육



박 춘 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장

한 나라의 교육정책이나 풍토는 결국 그 나라의 문화전통과 의식수준의 총체적 반영이며 교육현실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오늘날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인간상, 사회상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이삼십년 전에 뿌려진 교육의 씨앗에서 성장해 나온 것이며 지금 우리가 뿌리고 있는 교육의 결실은 다음 세대에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실력 있는 인간상 육성을 강조하며 공부 잘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교육력을 쏟아왔다. 그 결과 입시위주의 공부에만 주력하면서 덕성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역사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식이나 국가관이 부족하고 도덕 성적이 양호해도 도덕성과 준법성이 결여된 인간을 양산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모든 국민이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실력 있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라의 운명과 미래는 그 시대에 어떤 인물들

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진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전인교육의 요란한 구호 속에서도 다음 시대를 주도해야 할 우리의 2세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걱정하고 있으며, 무엇을 자랑삼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 “일등국가 일등국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 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학생들에게 보석같은 메시지로 전해주어야 한다.

반만년을 이어 내려오면서 자리 잡은 우리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면서 생활에서의 기본질서 확립을 통한 실천적 행동 양식을 정립하고 올바른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의 새해 경남교육은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학교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흥미로운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으로서의 학교 자율화 조치가 교육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본생활 습관형성에 바탕을 둔 실천중심의 덕성교육을 강화하여 사랑이 가득한 인간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향상을 통하여 소질을 살리는 인재 육성에 모든 교육가족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학습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뢰받는 교직원토를 조성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교육행정에도 충실한 한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로 971개 초·중·고등학교에 971개의 색다른 교육과정



김 명 희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2009. 6. 11. 『학교 자율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학교 자율화의 핵심은 『교육과정 자율화』로 ‘교원 인사 자율권’, ‘자율학교 확대’ 등은 학교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란 학교장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관련 정책 방안 등을 토대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학교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획일적으로 운영되어왔다. 특정 과목을 무슨 요일 몇 째 시간에 수업하느냐의 차이일 뿐, 학생의 적성과 흥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은 있을 수 없었다. 학교별 재량으로 특색 있게 편성·운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제7차 교육과정에 도입된 재량활동 부분이다. 그러나 그 창의적 재량활동 조차 국가, 각종 사회단체, 지역교육청 등에서의 요구사항이 많아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이에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 중심 자율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2009.6.11.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발표에 이르게 되었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목적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다양화를 유도하고, 학교별 특색 있는 학교 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자율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자율화 과제 개요〉

구분	학년도	개선 내용	비고
교과 활동	초1~고1	①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내에서 증감 운영 허용 ② 고교 1학년 교과와 이수시기를 전 학년으로 확대 (1학년부터 선택과목 이수 가능)	⑥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하여 학습 부담 경감(중 1~고)
	고2~3	③ 학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 허용(교육감 승인) ④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재량·특별 활동	초1~ 고1	⑤ 학교재량으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	-

※ ①,②,⑤ : '10년부터 추가로 자율권 부여

※ ③,④,⑥ : '09년부터 '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10년도에 일괄적 조기 시행

위에 제시한 『교육과정 자율화』추진 과제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1.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교과 시수 증감 자율권을 발휘하여 초등학교에서는 '기초·기본 교육 강화형', '예술·체육 교육강화형', '외국어 교육 강화형', 중학교에서는 '기본 교과 강화형', '실험 실습 강화형', '개별 학습 강화형', 고등학교에서는 '인문 사회 강화형', '수리 과학 강화형', '예체능 강화형' 등 학교별 교육 중점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고,

2. 초·중·고 전 학교에 그동안 형식적 또는 의례적으로 운영되어 온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영역별 관련 내용 또는 주제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중·고등학교에 학습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학년, 학기 간 집중 이수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대폭 확대 하는 방향으로 자율권이 부여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왔고,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과정 자율화』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대상별로 맞춤형 연수를 학교급별 각 3회 이상 실시하였고, 전 교원에게 1인 1부씩의 『교육과정 자율화』 리플릿을 제공,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보급, 『교육과정 자율화 묻고 답하기』책자 개발·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였다.

지난 12월 28일에는 2009년 교육과정 정책 연구과제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모형 개발에 대하여 공개토론회를 가졌으며, 도내 200여명의 학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간 열띤 토론과 함께 『교육과정 자율화』를 함께 고민하는 진지

한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관련한 앞서가는 행정 및 학교의 자율화 실천으로 2009학년도에 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자율화 우수학교에 도내 초·중·고 9개교가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기관 표창 및 인증패를 수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우수사례들은 도내 전 학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책자 및 CD로 보급할 예정이며,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9년 12월 23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자율화』가 바탕에 깔려있으며, 2010학년도는 『교육과정 자율화』가 현장에 적극 활용되는 단계이다.

『교육과정 자율화』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학교 구성원간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한다면 도내 971개 초·중·고등학교에 제각각 다른 색의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어 학생들에게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한 해, 학부모에게는 공교육의 신뢰를 다지는 한 해, 교사에게는 교직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는 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자여 자율마당에 싹틔운 실력나리, 생각달래



강 동 루
창원 자여초등학교 교장

본교는 역사와 전통은 짧지만 학교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학부모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활발한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우리 지역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 특히, 북한 이탈 주민과 자녀들의 유입이 급증하여 학교 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던 끝에 학생들의 학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인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여 자율 마당에 싹틔운 실력나리, 생각달래'를 운영하게 되었다.

1.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가. 마당다지기

개정교육과정 연구로 기초 다지기

- 개정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총론, 교과, 재량, 특별활동 분석결과지를 작성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시안과 재구성에 반영할 사항을 기록하였다.

우리 모습 살펴보며 기초 다지기

- 분과별·부서별 협의과정을 거쳐, 2009학년도 교육 계획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나. 마당펼치기

교과 학습으로 실력나리 싹틔우기

- 교과서와 지도서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과 교과내(간) 연계성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교육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였다.
- 개정교육과정 적용대비 수학과 보완 지도를 위한 추가 시수를 확보하고 지도하여 교과서 전면 개정으로 발생하는 학습의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 수학과 수준별 수업의 단계, 활동내용, 흐름을 자체 개발하여 1, 2학년 수학과 수업에 적용하였다.
- 교과별로 논술 관련 차시를 추출하고 목록표를 작성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였다.

통합교육과정으로 생각달래 싹틔우기

-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논술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중시하는 1, 2학년 교재를 개발하고 주당 1시간의 시수를 편성하여 도서관에서 수업을 실시하였다.
- 계기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과정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시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다. 마당가꾸기

학력Up! 부진 Down! 실력 있는 학교 가꾸기

- 학습지도 연구대회 협력팀, 향시수업 공개팀, 수업연구교사 지원팀을 조직하고 운영하여 교실 수업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학년초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선발하여 총16주 동안 주당 2시간씩 아침활동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담임책임지도에 의한 튼튼이 학습을 실시하였다.

서로 생각하며 배려하는 학교 가꾸기

- 다문화 가정 학생(12명)을 위한 행복전하기 프로젝트로 한국 문화 체험 활동, 대학생 멘토링, 학생 마니또 활동을 전개하였다.
- 4색(개인, 집단, 사이버, 다솜나눔장)으로 하는 상담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증진하였다.

영어향기 가득한 자여세상 가꾸기

- 학교 영어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1~6급 급수별 생활영어 책받침과 듣기 자료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지도, 생활영어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무학년 급수제를 운영하였다.
- 아침 영어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다양한 학예 행사 등으로 생활 영어를 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 자여 자율마당의 추진 성과

- 2008학년도 1, 2학년 수학과 평균 : 79 ➡ 2009학년도 1, 2학년 수학과 평균 : 87
- 2009. 경남 사이버 논술대회 저학년부 대상 수상
- 경남 독서한마당 독후화 그리기 부문 교육감상 수상
- 학습지도 연구대회 4명 본선 진출, 입상 / 수업연구교사 연구대회(2등급)
- 2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학년 초 교과학습 부진학생의 65%가 구제
- 설문을 통한 상담활동의 만족도 (학생N=140) - 상 96(69%) / 중 39(27%) / 하 5(4%)
- 6월 생활영어 인증서 수여 학생 수(66명) 대비 9월 인증서 수여 학생수(108명) 증가율 65%



나누리(Na-Nu-Ri) 악양교육



김 경 원
하동 악양초등학교 교장

1. 나누리의 행복 펼치기

본교가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지·덕·체·기를 겸비한 인재」로 도덕인, 자주인, 창의인, 건강인을 바라는 인간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인재를 기르기 위해 나(I)를 위한 계발, 너(You)를 위한 배려, 우리(We)를 위한 동행이라는 교육공동체 중심의 세부 비전을 설정하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한 나누리(Na-Nu-Ri) 교육을 학교 브랜드로 정하여 교육공동체의 행복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체화하였다.

2. 나누리의 행복 찾아가기

가. Na-Edu로 나(I) 계발하기

교육의 우선적 목적은 한 인간으로서 질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여 나에게 필요한 가치를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본교에서는 나를 계발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학력신장·최소수준의 학력, 특기·적성 계발, 논리적 사고력 배양 등을 선정하였다.

1) 학력향상! 디딤학습

가) 행복 두드림(Do-Dream) 여름·겨울 학력교실 운영 : 4주간, 전교생 대상

나) 반딧불이 악양공부방 운영 : 4주간, 고학년 대상, 17시~20시

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력향상」학력통지표 활용 : 연 4회 발송

2) 똑똑한 공교육! 방과후학교 : 정규교육과정에 방과후학교 연계(특기신장 관련 4개 부서), 방과후학교에 정규교육과정 연계(학력 및 보육관련 10개 부서)

3) 생각의 힘! 독서교육 : 도서관 연계·활용 수업 전개(1개 학년, 1주 1시간),

One-Book, One Akyang 프로그램 전개로 토론 능력과 사고력 신장

나. Nu-Edu로 너(You) 배려하기

이기심의 팽배, 개인성취욕구 등의 사회분위기로 인해 남보다 내가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농촌인 본교의 학생 또한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행복 요소로 다문화사회 이해, 다문화가정 자녀 배려, 내고장 문화체험, 환경보전의식 함양, 전통문화 계승의지 고취 등을 선정하였다.

- 1)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3개의 프로그램(다문화 이해, 우리문화 이해, 사회적응)으로 나누어 활동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친밀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유대감 형성, 우리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회 적응 활동 유도
- 2) 떠나자! 체험 기차놀이 : 내고장 주변 문화재, 유적지의 체험학습과 내고장 자연환경 중심의 생태체험학습으로 애향심과 환경보존의식 고취

다. Ri-Edu로 우리(We) 동행하기

학생 중심의 교육 주체 관점에서 교육공동체 중심 관점으로 변하는 흐름에 따라 학교는 지역사회 문화 창출을 위한 중심센터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고,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과 교육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해, 본교에서는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행복 요소로 교육공동체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 확인, 내고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고취, 서로를 배려하는 예절심 함양 등을 선정하였다.

- 1) 지역과 함께! 평생교육
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아생화 약초 연구교실 외 4부서 운영
나) 자녀이해 및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어머니 연극교실 외 3부서 운영
- 2) 신토불이! 친환경 먹거리 체험교육 : 전통식 친환경 장독대 설치와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전통음식 문화에 대한 친근감 형성
- 3) 고향사랑! 다도예절교육 : 차사랑 현장체험학습 실시, 생활 행다법 지도

3. 나누리의 더 큰 행복덩어리 꿈꾸기

2009년은 Na-Nu-Ri 행복 예감! 프로그램 추진의 원년으로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육공동체의 행복을 키워나가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일 것이다.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학부모는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교원도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더 큰 행복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2010학



행복두드림 여림학력교실



반딧불이 악양공부방



섬진강 생태체험



배추 김치 담그기

II.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과 교양을 두루 갖춘 **【배영 어린이 신사·숙녀 3품 교육】**의 추진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보충과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력 평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함

80% 이상 학력 갖추기



독서퀴즈대회, 독서토론대회, 독서는 슬대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0% 이상의 학생이 20권 이상 교양도서를 정독함

30권 이상 필독 도서 읽기



스케치와 수채화 기능향상을 위해 학기당 2편 이상의 작품을 완성하고 각종 대회에 출품함

그림 잘 그리기



교과서의 대화문 암기, English Day 운영,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를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과 교육과정 운영

영어교과서 80% 이상 말하기



학년별 배정 한자를 80% 이상 쓰기 지도를 통하여 한자 활용 능력을 향상에 기여함

한자 실력 키우기



학교홈페이지 활용도 향상, 재미학습 활용, 영재학습 홈페이지 개설 활용 등 사이버교수학습활동 자료 활용도 높임

홈페이지 활용 능력키우기



가정과 학교에서 지켜야 할 10대 생활 규범을 학년 수준에 맞게 선정하여 지도하고 체크리스트로 평가함

10가지 생활 규범 실천



감성곡을 선정하여 악기 연습, 명곡 감상, 학급별 발표회 실시로 음악과 심화보충 학습 실시

악기 연주 명곡 감상



체육동아리를 육성하고 운동기능 향상에 중점을 둔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과 즐넉기 기능 향상에 주력함

1인 1운동 잘하기



민속춤을 익히고, 진주 포구락무를 전수하며 학급 무용 발표회 등을 통하여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 함양에 기여함

민속춤 즐기기



외국인 친구 초청하기, 펜팔, E-mail 교환 등을 지도하여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함

외국인 친구사귀기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 정보검색과 정보교환의 방법 활용, 워드프로세서 활용 기능 향상에 기여함

컴퓨터 활용 잘하기

III.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배영어린이 신사·숙녀 3품 교육을 통해 본교는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인성 함양, 학력 향상, 교양인으로서의 취미 신장, 세계화에 대비한 바람직한 태도 함양,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에 이바지 함
- 10월 현재 12개 하위 영역을 평가한 결과 3품 교육 도달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1품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



◆ 3품 교육 도달 현황 ◆

사랑과 창의로 매진하는 ACE 사천 교육



황준기
사천초등학교 교장

I.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본교는 100년이 넘는 학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민은 학교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나,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조손 가정 아동 등 소외계층 아동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을 SWOT분석을 근거로 본교는 학생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꿈을 가꾸게 하고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부모, 지역사회에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외계층 아동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랑(Attitude)과 창의(Creativity)로 매진(Effort)하는 ACE 사천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되었다.

II.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사랑 (Attitude) : 바르게 행동하며 심성이 고운 어린이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추진 성과
마음가꾸기 교육으로 바른인성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하는 3From 운동 친구사랑·이웃사랑 실천 교과관련단원 보강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om Me, From Now, From Small(칭찬, 인사, 차례) ▶복지시설자매 결연(신애원), 독거노인 돕기 ▶도덕, 국어, 사회과 관련내용 연계지도
편견을 넘어 더불어 사는 세상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프로그램 구안 다문화 재량활동 지도자료 제작 다문화 학습 자료 제작 다문화 학생지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 태도, 기술의 단계를 고려한 학년별 프로그램 제작 ▶다문화 교육을 위한 아동용교재, 교사용 지도서 제작 ▶학습지와 도서 형식을 병합한 학생 학습 자료제작 활용 ▶도답반 운영, 다문화 방문교사제,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追體(추체)학습을 통한 애국·애족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미독립만세 재현행사 실시 사적을 이용한 체험교육 교과 관련내용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9.03.01 선배들의 독립만세 운동 재현 (3.21) ▶사천읍성 충혼탑 참배, 주변정화 활동, 체험학습 실시 ▶향교입소를 통한 전통 예절 교육(2회 560명)
체험중심의 민주시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어린이 국회 운영 어린이회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국회 회원 5, 6학년 24명 조직 운영 ▶국회 방문 민주주의 현장체험활동 참가 ▶토론 방법, 모의국회 진행방법 교재 제작활용
창의(Creativity) : 탄탄한 기초위에 새롭게 탐구하는 어린이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추진 성과
독서 논술 교육을 통한 사고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 구입 체험학습 다양한 독서 행사 실시 독서인증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점에서 직접책 구입 체험학습 실시(전교생 1124명) ▶독서·논술교육, 수준별 평가 ▶다양한 독서 행사 실시 논술 평가의 (5개영역) ▶필독(10권), 권장도서(50권)안내, 인증서 발급(62%)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창의성 계발·특기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부서 개설 (40.1% 참가), 학부모 만족도 향상 ▶ 계발활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관악부, 합창부 등 7부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과학 체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속 과학 탐구 교실 운영 • 실험 위주의 과학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영재교실 운영(2과정) 전국대회 은상의 23명 입상 ▶ 발명반 운영(2개반), 발명품경진대회 금1, 은1의 입상 ▶ 과학전담교사제 운영 및 실험기구 사전 요구제 실시
원어민 활용을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민활용 영어교육 실시 • 영어 관련 행사 실시 • 교사 연수등아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m Teaching 활용 영어수업(5, 6학년) ▶ 원어민을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실운영 주2회(3, 4학년) ▶ 영어캠프운영, 영어말하기 시대회(08 대상, 09 은상 입상) ▶ 사천 TEE 교사등아리 조직·운영(13명)
체육교육의 활성화로 기초체력 및 지구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영재육성 • 줄넘기운동의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체육 수업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 체육영재 교실 (전국소년체전 은메달 외 54명 입상) ▶ 줄넘기 기능인증제운영(43% 인증서 발급) ▶ 축구 동아리 외 3부 운영, 교육장기 축구대회 2년 연속 우승 ▶ 체육수업 기능 우수교사 체육전담 교사 우선 배정
매진 (Effort) :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는 어린이		
추진 과제	추진 내용	추진 성과
도전하는 사천 어린이 하랑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 어린이 6하랑(으뜸)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전하는 사천어린이 6 하랑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하랑, 독서하랑, 줄넘기하랑, 영어하랑, 정보하랑, 예능하랑제 실시(전교생 1124명)
ACE 사천어린이 육성을 위한 교사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5 Project 실시 • 학습지도를 위한 노력 • 동학년 협의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 단원평가문항개발, 학력캠프, 지도 자료 제작·활용 ▶ 학급경영 능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동료장학

「2009 사천교육활동 이모저모」



기미 독립만세 재현행사



책 구입 체험행사



다문화 교육



사투리 말하기대회 대상

Ⅲ.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창의로 매진하는 ACE 사천교육의 비전’을 담은 사천교육과정 운영은 교원에게는 본교의 바라는 인간상을 실현시키는데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는 바른 생각으로 창의롭게 행동하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탐구심 함양으로 과학, 체육, 영재교육, 문예 등 여러 분야의 대외 행사 입상실적이 탁월하였으며, 자신감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이 고취되었다. 특히 ACE 사천교육결과 ‘2009 학교 평가 최우수 학교’, 학년교육과정 자율화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도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교육공동체의 아름다운 동행 '호계 명문교육 7대 프로젝트'



전 광 숙
마산 호계중학교 교장

I.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을 참된 인성과 지식 습득, 정보 능력, 영어회화 능력, 강인한 체력 등을 갖춘 21세기형 호계 인재로 육성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시작된 변화는 '호계 명문교육 7대 Project'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졌다.



II. 추진 목표

'자주적이며, 창의력을 지닌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본교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공동체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호계 명문교육 7대 Project'의 주제 선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3개년 목표를 제시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 호계중학교에 가면**
- Project 1. 언제나, 어떤 고민이나 상담을 해주며 부적응 학생을 위한 Wee Class 운영
 - Project 2. 뒤처지는 학생 학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 운영
 - Project 3. 우수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 운영
- 호계중학교를 졸업하면**
- Project 4. 컴퓨터 자격증 1개지는 취득합니다.
 - Project 5. 기초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 Project 6. 1가지 악기는 다룰 줄 알게 됩니다.
 - Project 7. 1가지 운동은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III. 주요 추진 내용

‘호계 명문교육 7대 Project’를 통해 만들고 싶은 명문학교의 꿈은 바로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는 학교’이다. 본교는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운영 기반 조성, 7대 Project 운영, 운영 성과 확산 및 일반화 등의 3단계로 추진하였다.



STEP1. 운영 여건 조성



STEP2. ‘명문교육 7대 Project’ 운영

STEP3. 운영 성과 확산 및 일반화

- 첫째, 호계 명문교육 자문 위원회 운영
- 둘째, 호계 명문교육 만족도 설문 조사
- 셋째, 교직원 세미나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IV. 추진 성과

이렇게 추진한 ‘호계 명문교육 7대 Project’는 다양한 결실을 가져왔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호계 지·덕·체 명문교육 7대 Project’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증진되었다.
- 둘째,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폭넓은 활동이 가능하였다.
- 셋째, 학교 민원과 학생 비행이 감소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향상되었다.
- 넷째, ‘호계 명문교육 7대 Project’가 학생들의 자신감이 충만한 생활을 가능케 하였다.
- 다섯째, 학생들로 하여금 행복한 미래를 향해 비상할 수 있게 하였다.



봉사 활동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

Brain up! 6품제로 명품 인재 육성



전 창수
김해 내덕중학교 교장

I.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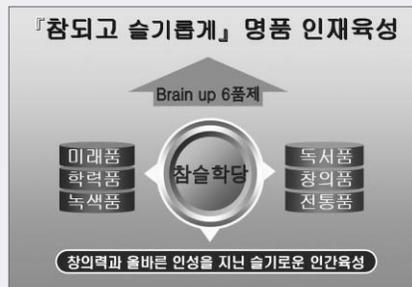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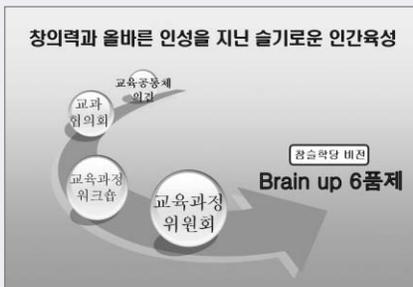
학교 실태와 학교공동체의 요구를 파악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참되고 슬기롭게’ 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Education Action)을 운영하되 지속적인 교육과정 환류를 통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Brain up 6품 참슬 학당을 운영하였다.

II. 함께 만들어가는 「Brain up! 참슬학당 교육과정」

1. Brain Up 참슬 6품제로 명품 인재육성

본교는 개교하여 4년째로 기반을 다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학교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O1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학력’을 향상시켜 내일의 인재로 키우며,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었다. ‘독서’ 교육을 통하여 폭넓은 교양과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창의력’을 신장시켜 가슴에 꿈을 키우며, ‘옛 것’을 알고 미래를 꿈꾸는 참슬학당의 교육 비전으로 ‘Brain Up 참슬 6품제로 명품 인재 육성’을 추진하였다.

2. 교육 목표와 세부 추진내용



3. 교육과정 운영 내용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교육공동체의 실태를 분석 → 교육과정 워크숍(2회), 교과협의회(12회) → 교육과정
확정을 통하여 Brain up 참슬학당 6품제를 만들어냄

나. 미래를 여는 아침시간 참슬학당 (미래품)

1) 놓칠 수 없는 아침시간 40분의 활용

- 학급문고를 활용한 독서지도 : 주2회 윤독도서를 활용, 학생1인당 년60권 이상
책임기 권장, 개인독서 기록장, 학급에 독서량 그래프, 홈페이지 독서 감상문
(4792건) 탑재하기
-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EBS영어 교육방송 : 주2회 3원화 방송실시, 영어 방송노
트, 매일 영어로 칭찬 한마디
- 생활한자 익히기 : 주1회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교직원 강의, 한자학습, 한자쓰기
교내경시대회

다. 실력이 쑥쑥 ! Brain up 참슬학당 (학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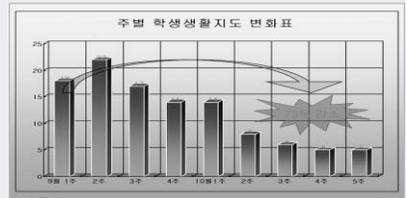


1) 자기개발 교육활동 : 교과와 특기적성 운영(8강좌) → 실태분석 → 교육과정
협의 → 수정보완 → 뒤처짐 없는 학력Up반 및 교과 집중 이수제 등으로 교
육활동 강화

- 뒤처짐 없는 학생을 위한 학력Up반 : 5개 교과 각 학년 2개반, 6학년 편성
학급당 15명 내외 : 총 73명수강
- 자기주도적 학습반 : 3개 교과 각 학년 1개반 3학년 편성(20명내외) : 66명수강
- 자기계발 교육활동 : 교과와 특기적성(9개 강좌)개설 : 162명수강
- 교과 집중이수제 교육활동 : 1, 2, 3학년 각 5개 강좌 운영, 1학년(113명), 2학
년(116명), 3학년(118명) 수강함. 개인의 부족교과를 보충할 수 있어 효과가 높
았으며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함.
- 참슬 공부방 운영 : 1학년(26명), 2학년(16명), 3학년(12명), 교사 36명 참여

라. 즐거움 최고 ! Brain up 참슬학당 (녹색품)

1) 학생들이 칭찬 받을 일을 하면 BP를 주고
규정을 위반하면 RP를 발급하며 학생 스
스로 자신의 나쁜 습관과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며 칭찬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RP를 받으면 즉시 가정으로 연락하여 부
모님 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실현함



(그린마일리지제 운영 생활지도 변화표)

2) 야호 ! 신난다. 산으로 들로 나가는 반별

테마 현장 체험학습실시(11개 테마) : 학생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았으며 '즐거운

학교, 오고 싶은 학교'의 프로그램이었음

3) 함께하는 내 친구 : 전교생이 친구사랑 10계명을 낭독하고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며 폭력 예방에 힘쓸(27개 반이 각기 다른 테마로 활동함)

마. 미래의 꿈을! Brain up 참숯학당 (독서품)

1) 책 속의 보물을 찾아서

영역	내용
도서관 활성화 계획	권장도서 791권 선정, off-tv, on- book 운동, 꿈가꾸기 노트(전교생)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는술지도
윤독 도서	학급당 (40권) 주2회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여 독서지도, 독서노트 활용
학급 문집	전학급 제작(27권): 전학생이 한명도 빠짐없이 글을 싣도록 함.
독서인증제	필독도서(10권), 권장도서(10권 선정), 학급에 독서량 그래프 작성

바. 창의력 쑥쑥! Brain up 참숯학당 (창의품)

1) Science 동아리 :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자연탐사에 16명이 활동(금상수상 및 6회 입상)

사. 옛 것을 찾아! Brain up 참숯학당 (전통품)

1)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우리의 옛 것 알기

- 교과교육과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 6개 교과에 (전교생 924명)
- 전통놀이 체험경기 : 9개 전통놀이 체험활동(전교생 924명)
- 건강 즐넉기 프로그램 : 27개 반에 건강즐넉기 그래프 작성, 건강체력 통지표 발송
- 자기계발 교육활동과 계발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익히기 : 사물놀이, 민요(외부강사초빙 전교생 의무 각 반별 2시간강의)

4. 향후 발전 계획

본교는 개교하여 4년째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학교로서 Brain up 참숯학당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와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활동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며, 졸업식마다 타임캡슐 제작(학급문집, 친구사랑편지, 기념사진 등)과 기념식수를 할 것이다.

수준별·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꿈을 찾아 가꾸고 완성하는 일류 용마인 육성



하 영 식
마산용마고등학교 교장

2009년 6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학교자율화의 핵심은 '교육과정 자율화'이다. 핵심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에 대한 책무성을 묻겠다는 것이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준비를 이미 해 오고 있었다. 2008년 11월,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마산용마고의 중장기적인 교육발전 계획과 각종 규정 등에 대한 재정비, 2009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운영, 2009학년도 학교 운영에 반영하였다. 주요 추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급수+1 체제'의 수준별 이동수업
 - 1, 2학년 수학과, 영어과 "3+1, 2+1 체제"의 수준별 이동수업
- 학생 강좌 선택제를 통한 수준별 보충학습
 -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과 수준별 보충학습 프로그램 공유
 - 1, 2학년 방학중 수준별 보충학습 인터넷을 통한 강좌 선택제 운영
 - 1학년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 수준별(3~4 수준) 선택형 강좌 운영
 - 2학년 28개 강좌, 50개 수강반으로 편성·운영
- 수월성 교육을 위한 심화·보충학습 실시
 - 학력 우수학생 심화학습
 - 야간 특별 강좌 개설·운영(연중)
 - 1~3학년 희망학생 대상 언어, 수리, 외국어 강좌 개설

- 수강료 무료(동문장학재단 지원금 활용)
- 학습부진학생 보충학습
 - 1~2학년 학습부진학생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보충학습 실시(방학 중 2회)
 - 1~2학년 학습부진학생 영어, 수학 보충학습 실시(학기 중 3회)
 - 수강료 무료(학교 예산 활용)
- 독서·논술교육 강화
 - '논술' 과목 신설
 - 2학년에 교양과목으로 논술(4단위) 과목을 신설하여 독서·논술교육 강화
- 소수 선택과목 개설
 - 3학년 학생 희망을 고려하여 소수 선택과목 개설
 - 국사,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 강좌를 정규 일과 후에 개설
 - 수강료 무료(사교육경감대책추진비에서 지원)
- 3학년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 수능시험 이후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학사 일정 탄력적 운영
 - 여름방학 단축을 통한 2학기 조기 개학(8월 5일 개학, 1~2학년 개학일은 8월 17일)
 - 2학기 시작일부터 수능시험 전까지 37단위로 운영
 - 수능시험 이후 1일 4교시 운영
-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수시 수정·보완
 - 여름 및 겨울방학 중 교직원 워크숍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안) 논의
 - 교육과정 운영 선진학교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추진

본교는 학생들의 학력이 매년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학생간의 수준의 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규 교육과정과 보충학습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학생의 수준에 따른 이동수업, 소수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강좌개설, 수준과 선택을 존중하는 보충학습, 수월성을 제고하는 심화·보충학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꿈을 찾아가꾸고 완성하는 일류 용마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학년도에는 금년에 운영한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확대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직원들이 원하는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할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선도학교로 시범 운영되는 선진형 교과교실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요구의 수렴과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일류 용마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과목별 성취목표 도달을 지향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정재표
마산여자고등학교 교장

1. 들어가며

전년도 교육과정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등으로 일반계고등학교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찾고 나아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경감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알맞은 선진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하고자 하였다.

2. 과목별(영역별) 성취목표 도달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가. 과목별 학력 향상 성취목표 설정

- 전년도 및 2009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하여 학력 10%이상 향상을 위한 타당도 높은 목표치를 각 과목별로 설정, 전국연합학력평가 후에는 반드시 교과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분석, 환류 체계 구축

나. 과목별 학업 성취수준 향상을 위한 수준별 수업

- 1·2학년 수학·영어 교과는 「2(기초, 심화)+1(보충)」로 정기고사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토대로 반을 재편성하여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다. 학생성취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연번	강좌명	장소	지도내용
1	자기 주도적 학습코칭	교실	자기주도학습 점검 프로그램 운영
2	EBS 방송 청취 지도	교실	EBS방송청취 후 교과 담당교사 개념 정리 및 질문에 답변
3	학습방법 코칭	학습실	교과별 학습방법 지도 및 상담
4	토론학습반	교실	토론 학습을 통한 사고력 및 발표력 향상

연번	영역	강좌명	수업내용
1	언어	기출문제분석반 1반	언어 구사능력 적용학습
2	논술	인문계 논술	논술, 심층면접 대비를 위한 맞춤형 수업
3	영어	외국어 문법 기초반	어휘력 및 해석능력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력 학습
4	영어	TEPS준비반	TEPS준비
5	수리과학	수리과학 논술반	수리과학 논술, 심층면접 대비를 위한 맞춤형 수업
비고	• 방학 중 프로그램 1학년 : 5개 과정 99명(28.53%) 참여 2학년 : 16개 강좌 283명(68.36%) 참여 3학년 : 3개 강좌 54명(14.59%) 참여		• 평일, 주말 프로그램 1학년 : 5개 강좌 105명(30.26%) 참여 2학년 : 12개 강좌 232명(56.04%) 참여 3학년 : 1개 강좌 7명 참여

-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대학생 교사 멘토제 운영
- 수월성 교육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심화학습프로그램 운영

라. 자발적 성취의욕을 높이는 재량·특별활동 통합 운영

- 언어영역 성취의욕을 자극하는 창의적 독서·논술 행사
- 과학적 탐구능력 배양을 위한 과학축제 및 탐구 행사활동
- 외국어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통합 행사활동

마. 자기주도력 향상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아침독서시간 확보 및 독서인증제 실시
- 교과연계 독서토론 활동
- 도서관 활용 수업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 교육
- 재량·특별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20개 부서)

3. 마치며

과목별 성취목표를 정하고 학력 책임 지도제로 운영한 결과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력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교육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방과후 학교 선택형 교과학습 프로그램이 우수학생들에게는 수월성 교육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는 보충학습 및 무학년제의 개념으로 학생들의 학습효율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초/대/석



장 석 원
미즈유외과 원장

건강상식 - 여성의 건강관리 내 가슴이 찌릿하게 아프다면



얼마 전 한 환자가 상기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틀 전에 퇴원 했는데요. 다행히 초기 유방암(0기암)으로 진단되어서 유방 보존 수술 (상처 5cm미만)만 하고 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방금 전 전화왔어요.” 이 여성분은 한 달 전쯤 가슴이 찌릿하게 아파서 우리 병원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 후 8mm 정도의 작은 혹이 발견되었는데 혹의 모양이 좋지 않아 세침(작은 바늘) 조직 검사 후 암으로 의심되어 서울 Y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였습니다. 그날은 유방암 조기검진과 예방을 위한 핑크 리본 캠페인이 열리는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유방암 발생률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여성 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보다 10년 정도 젊은 40대 후반에 가장 많이 생기며, 특기할 점은 점점 유방암 환자의 나이가 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방암을 1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며, 85%이상이 유방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가 검진과 임상검진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여성 혹은 남편의 필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유방암학회, 국립암센터는 아래와 같이 조기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30세 이후에는 매월 자가 유방 검진’을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 임상진찰’ 하도록 합니다. 또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과 유방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성 10명 중 8명은 자가 유방 진찰법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아는 여성은 절반가량이고 실천하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따라서 자가 유방진찰법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가진찰법〉

자가 검진은 생리가 끝난 직후부터 3~5일 사이(생리때 부푼 유선이 가라앉는 시기)에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임신이나 폐경의 경우, 매달 규칙적인 날짜를 정해 실시하도록 합니다.

〈자가진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 (유방)외과전문의와 상담하세요.〉

1. 딱딱하고 아프지 않은 혹이 만져진다. 2. 겨드랑이에 혹이 만져진다. 3. 유방 외부가 오렌지 껍질 같이 두꺼워진다. 4. 한쪽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커진다. 5. 유두가 들어가거나 습진이 생긴다. 6. 유두로 분비물이 나온다.

유방암은 초기에는 대체로 증상이 없고 유방에서 혹이 만져질 정도인 최소 1cm 이상이 되면 이때는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정기적으로 자가진단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방암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거울을 보면서 육안으로 관찰

평상시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를 비교

1



양팔을 편하게 내려놓은 후 양쪽 유방을 관찰한다.

2



양손을 뒤로 깎지 끼고 팔에 힘을 주면서 앞으로 내민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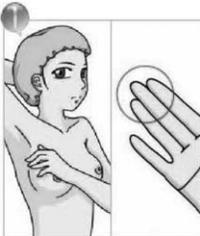
양손을 허리에 잡고 어깨와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에 힘을 주고 앞으로 숙인다.

2단계

서거나 앉아서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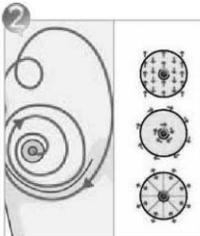
로션 등을 이용 부드럽게 감진

1



감진하는 유방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편 2, 3, 4번째 손가락 첫 마디 바다반을 이용해 감진한다.

2



유방주위 바깥쪽 상단부위에서 원을 그리면서 안쪽으로 반드시 쇄골의 위, 아래 부위와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감진한다. 동전크기만큼씩 약간 겹쳐서 시계 방향으로 3개의 원을 그리면서 감진한다. 유방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고 좀더 작은 원을 그리는 식으로 한 곳에서 3개의 원을 그린다.

3



유두 주변까지 작은 원을 그려며 먼저 본 후에는 유두의 위 아래와 양옆에서 안쪽으로 짜보아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3단계

누워서 촉진

2단계를 보완 자세를 비공으로써 문제조각 발견

1



편한 상태로 누워 감시하는 쪽 어깨 밑에 타올을 접어서 받친 후 감시는 쪽 팔을 위쪽으로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2단계의 방법과 같이 감진한다.

발췌 한국유방건강재단

1. 사망조위금 수급자 및 청구에 관한 결정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기관을 확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예 시	청구인 및 청구기관
1.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인 처가 있음(부부공무원) (사망)	사망한 자의 처 “을”은 법 제41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갑”의 소속기관에 청구하여야 할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소속기관에 청구할 수 없음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고(이혼 사망)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에 공무원이 있음 (사망)	법 제41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직계비속 “을”이 공무원 “갑”의 소속기관에 청구하여야 하고,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병”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음
3.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고(이혼 사망)직계비속 중 장남과 공무원인 차남이 있음 (사망)	공무원인 차남 “을”은 법 제41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공무원 “갑”의 소속기관에 청구하여야 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소속기관에 청구할 수 없음. 장남(공무원이 아님)은 영 제36조의2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청구권이 없음

2. 청구 및 지급절차

1) 결정 및 지급절차

구 분	결정 및 지급주체
국가직 공무원	공 단
지방직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도, 구, 군 등)
교육직 공무원	해당 교육청

2) 청구 및 지급절차

- 청구인 :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연금취급기관에 제출
- 연금취급기관 : 청구서에 기재된 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공단(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공단(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하여야 함

※유의사항

1. 청구서상의 직급·호봉은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직급·호봉을 기재하여야 함.
2. 수급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정하여 법정대리인 명의로 청구하
3.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에 청구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최선순위자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4.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사실은 반드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통장사본, 의료비납부영수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5.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법상 단기급여로 청구시효는 3년이며,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상실됨.(2005.7.1.개정)
※ 단, 2005.6.30. 이전 사유발생건의 경우 청구시효는 1년임.

3. 구비서류

구비서류	결정 및 지급주체
1. 사망조위금 청구서	○ 별지 제8호 서식
2.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사망일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청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배우자, 부모사망 - 사망자 기본증명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조 부모 사망 - 사망자 기본증명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조부모 사망 - 사망자 기본증명서,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부모사망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 제출
3. 부양사실 증명서류(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 외여느리, 외사위, 맘머느리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지급 관련 입증자료 -비용납부영수증 또는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통장사본 등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4. 사후관리

1) 사후결과 통보

- 부조급여는 1인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직, 지방직을 불문하고 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타기관 소속공무원과의 이중지급의 검색을 위하여 반드시 공단의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처리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전산사용이 어려울 경우 지급결정후 익월 7일까지 부조급여 지급자 명단을 공단 해당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복지 12501-376 : '99. 7. 15)

2) 이중지급에 따른 조치사항

- ◆ 이중지급 환수절차
 - 각 기관의 급여지급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중지급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단은 급여를 지급결정한 기관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이를 확인) 후순위자에게 부조급여를 지급한 기관에 기 지급액을 환수하도록 통보
 - 환수 통보를 받은 기관은 즉시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부조급여 환수이자
 - 후순위자 등에게 지급된 부조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로 보아 환수시에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환수내역 통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순위자 등에게 지급된 부조급여를 환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중 지급사실을 통보한 공단 지부에 환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과거에 환수절차가 복잡하거나 곤란하다하여 선순위자로부터 수급권리 포기각서를 징구하고 후순위자의 수령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일신전속권리의 포기이므로 포기각서 제출과 동시에 수급권리가 상실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

함께 꿈꾸는 성공적인 수업을 찾아



박 영 란

김해동광초등학교 교사

어느 해보다 교단현장의 교실수업개선 의지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던 2009학년도 대장정의 막을 뒤로 한 채 희망찬 새해 경인년은 성큼 다가와 손짓한다. 교실수업개선을 향한 교단현장의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 2010학년도에는 각 교실마다 좋은 수업, 재미있는 수업으로 우리 아이들 모두가 환하게 웃는 행복한 모습과 반짝이는 눈빛으로 쑥쑥! 실력을 키워가기를 소망한다.

1. 학생 개개인의 강점지능을 찾아 개발하고 약점지능을 적절히 강화하자.

다중지능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8가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마다 각 지능의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 수영선수 박태환의 다중지능을 분석한 결과 두 선수 모두 신체운동지능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놀랄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한다. 두 선수의 비범한 성취가 가능했던 것은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고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부모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부모역할에 충실해야 할 학급담임으로서 학생들의 강점지능과 잠재지능을 찾아 1%의 가능성이라도 발견하는 즉시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기회 제공으로 재주와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는 지적자극과 지적성장을 촉진하여 적극적인 수업참여도를 높여가고 유도해 갈 때 생동감 넘치는 수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 개개인의 재주와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수업을 디자인하자.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한 성장·발전을 위해 강점지능을 더욱 개발하고 약점지능을 적절히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모둠 구성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즐겁게 활동하는 수업을 디자인해 보자. 학생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한 모둠 선택활동으로 참여도와 흥미를 높여가 생동감 넘치는 밀도 있는 수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능별	모듬구성	활동 내용	비고
언어지능	작가모듬	글쓰기 활동으로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가드너의 8가지 다중 지능 중 학생 들의 재능을 마음 껏 발휘할 수 있는 6가지 지능중심의 6모듬 구성
논리수학지능	선생님 모듬	문제 만들기 활동으로 내용의 흐름을 이해한다.	
공간지능	화가 모듬	그림그리기 활동을 통하여 느낌을 표현한다.	
신체운동지능	연기자 모듬	역할극으로 재주와 끼를 발휘한다.	
음악지능	음악가 모듬	노래와 춤으로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대인지능	기자모듬	인터뷰를 통하여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3. 학생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수업 방법 개선으로 깊이 있는 수업을 전개하자.

학생들은 직접 들은 것은 10%, 본 것은 20%, 토론한 것은 40%, 직접 행한 것은 90%를 기억한다고 한다. 우수아동 몇 명에 의해 주도되는 수업을 지양하고 학급의 전아동이 능력별 수준별 과제선택에 의한 온몸으로 부딪혀 행하는 활동이 주가 되는 수업을 디자인하자.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이 주가 되는 활동으로 재주와 끼를 마음껏 발휘할 때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생동감 넘치는 깊이 있는 수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4. 함께 꿈꾸는 성공적인 수업은 교실수업개선 의지와 수업전문성으로

재미 UP! 수업전문성으로 학생들의 교실수업만족도를 높여갈 때 학력이 향상되고 더불어 학부모들의 교육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 다양하게 표출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와 기대치를 충족시켜가기 위한 창의성을 촉진하는 교실수업방법 개선으로 성공적인 수업을 펼쳐가는 것은 함께 꿈꾸며 지향하는 목표다. 우리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수업의 달인에 도전해보자.



좋은 수업은 교사의 생명



이 학 렬
마산 호계중학교 교사

I. 들어가며

흔히들 ‘수업은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수업의 다양성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요즘 동료 교사나 또는 모임으로 인해 교사들을 만나보면 교사의 생명이라고 하는 수업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 연찬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연구대회에 첫 도전한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수업연구대회에 출전해서는 시 대회 예선 탈락이라는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 때는 정말 저 자신에 대한 용기를 잃기도 했었습니다. 몇 번의 도전 끝에 도대회 1등급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2009학년도에는 ‘좋은 수업 발표 교사’로 선정되어 두 번의 공개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저 나름대로 좋은 수업에 대해 폭넓은 시각도 생겼고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확실한 정답도 없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수업연구대회를 준비하고 ‘좋은 수업 발표 교사’ 공개수업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을 쓰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수업연구대회 및 좋은 수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II. 체육과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

좋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체육 수업 방법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체육수업모형적용에 관심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요즘 소개되고 있는 체육수업모형 중에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합한 모형과 종목별로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여 교수·학습 과정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III. 효과적인 체육 수업

체육 수업에서 체육 교사와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체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활동에 많은 양의 수업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과적인 체육교사는

○ 수업의 계획 측면에서

-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식, 기능, 이해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에 따라 개별 학생에게 적절한 학습경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처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업설명 및 시범 측면에서

- 새롭게 배우는 내용과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이해가 가도록 효과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예시와 시범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 수업관리와 조직 측면에서

- 수업초기부터 관리적 활동에 관한 명시적 절차와 규칙을 마련하여 예방적 관리전략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학습시간과 학습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 수업의 활발한 진행 측면

- 학생 개개인이 어떤 학습의 곤란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관찰기술을 지니고 수업의 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제공하며, 시범과 설명은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하고, 학생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보다 많은 학습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진전 상황을 주시하고,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끊이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내용과 자료의 설명, 그리고 연습활동에 관한 피드백을 주는 것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IV. 하나로 된 수업 시도

체육교육은 운동을 통하여 학생들을 ‘참으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품성을 갖추는 통로가 되어야 하며, 운동기술 만이 아니라 스포츠의 정신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인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로 수업은 ‘운동의 안과 밖을 하나로, 동시에 겪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행하는 운동이란 ‘안쪽 축’과 ‘바깥쪽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수업에서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첫째, 기능과 지식과 태도를 하나로!, 둘째,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하나로, 셋째, 학교수업과 일상생활을 하나로, 넷째, 능력, 성별,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이러한 4가지 측면을 하나로 만듦으로써 학생의 인성(지성, 덕성, 감성이 하나 된 의미에서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전인교육으로서 수업이 되도록 의도하는 것입니다.



준비운동



ICT활용 수업(수업의 가치)



자세연습(동료교수 등)

V. 나오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수업연구대회의 참가 경험은 무엇보다도 저에게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 또한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좋은 수업이란 학생들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수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사’로서 느끼는 부러움의 대상은 교사가 지닌 수업 능력입니다. 우리는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강한 충동을 느끼며 이 충동을 실천에 옮기며, 당분간 유지시켜갑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운이 따르게 되면, 인생의 많은 것들처럼, 체육교사의 수업 능력은 향상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다른 초년 교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수업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나 좋은수업을 위한 교사의 피나는 노력은 있을 수 있다.

좋은 수업!

그것은 학생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이해와 정인정신이 바탕이 된 토양 위에,
수업 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과, 연구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땀의 결실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교사의 보람이다.



시간축 사고기법과 함께하는 상상여행



조 선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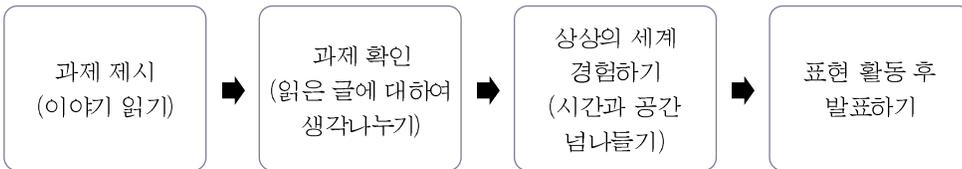
김해 진영금병초등학교 교사

▣ 시간축 사고기법이란?

‘시간 넘나들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기법은 창의성 개발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의 관점을 미래와 현재, 과거 등으로 옮겨 생각하는 사고기법이다. 즉 사고의 시간을 현재에서 과거, 미래로 옮겨서 대상이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사고의 시간이 옮겨지게 되면 사고의 공간도 옮겨지게 된다. 시간과 공간이 옮겨진 상황에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보는 이 사고 기법은 유창성, 상상력, 독창성 등을 기를 수 있으며 창의성 사고기법 중 누구나 쉽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시간축 사고기법 들여다보기



▣ 시간축 사고기법 기본다지기

생각주제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어 과거와 현재, 미래로 여행하기 <심청이의 효도는 최선의 방법인가?>	
단계	활동	활 동 내 용
1단계	과제 제시하기 (이야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과제로 '심청전'을 읽게 하기
2단계	과제 확인하기 (내용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은 글에 대해 주인공이 되어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자유롭게 생각나누기 -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요. - 심봉사 가 눈을 뜨기 위해 스님과 약속을 해요. 등

3단계	상상의 세계 경험하기 (시간축 여행하기)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청이 살았던 시대로 여행해 볼까요? -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 - 심청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현재에 심청이가 살고 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 심봉사의 눈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될까요?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청이가 100년 뒤에 살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 심봉사의 눈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4단계	표현하기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서 발표해 보기 - 내가 심청이라면 나는 _____ 할 것이다. 	

▣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의 예

구 분	과거로	○ 타임머신을 타고 1900년대로 돌아가서 11살 아이의 여가생활을 상상하며 일기로 적어보기
	현재로	○ 오늘날 내가 인조의 위치에 있다면 척화파와 주화파 중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미래로	○ 나의 자서전 만들기 ○ 우리 고장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하여 표현하기
적용 수업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어보기 ○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이야기의 뒷부분 완성하기 ○ 신문에 난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상상해 보기 ○ 나의 미래상상하여 설계하기 ○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역할극하기 ○ 이야기의 부분을 선택하여 시간과 장면을 바꾸어 이야기 새롭게 쓰기등 	

▣ 시간축 사고기법 활용 효과

1.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관점을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옮겨서 생각하는 시간축 사고 기법을 사용하면 유창성, 상상력, 독창성, 융통성 등을 기르는데 효과가 있다.
2.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뛰어 넘어 유연한 사고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3.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경험적인 자기 세계에서 쉽게 벗어나 풍부한 사고를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4.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5. 실제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상상을 통하여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6.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상을 통하여 사고의 폭을 넓혀감으로 인해 글감이 풍부하여 글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2010 달라지는 경남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이 병 만

정책개발담당 장학사

■ 현 행

- 2008년도부터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비 연차적 확대 지원
- 2009년 : 읍·면지역 전액, 시지역 1인당 50% 지원

■ 달라지는 내용

- 2010년 이후 경상도내 전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구. 기성회비)를 전액 지원함(1인당 157,200원)

년도별	읍·면지역	시지역 1인당	지원인원(명)	소요재원(백만원)
2008년	전액	20%	137,426	10,486
2009년	전액	50%	136,761	14,573
2010년 이후	전액	전액	136,266	21,421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 헌법 제31 조제3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은 무상]
- 시 행 일 : 2010. 3. 1(예정)

■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268-1384)

학부모 무방문 전입학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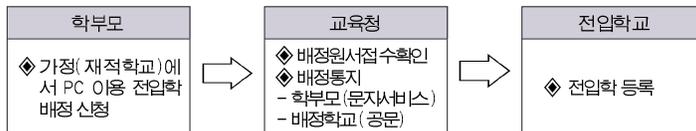
■ 현 행

- 적용지역(청원, 마산, 진주, 김해) 고등학교 전입학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재적 학교, 도교육청, 배정학교를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음



■ 달라지는 내용

- 적용지역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
- 전입학 안내 및 신청 방법 : <http://service.gne.go.kr/>



- 전입학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학부모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 전입학 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 2009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지침
- 시 행 일 : 2010년 1월

■ 관련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민원실(☎268-1363~6)

상해한국학교



김헌수
중국 상해한국학교 교장

중국 상해시에 위치한 상해한국학교는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와 중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1999년 9월 1일 초등 3학급으로 개교를 한 이래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개교 당시 초등학생 43명이던 학생수가 10년이 된 2009년 현재 초·중·고 46학급 약 1,1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재외국민교육의 요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자’라는 교훈 아래, 국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히 영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외국어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의 국제학교 특구에 위치한 여러 학교와 교류의 기회를 넓혀가며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 최상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해한국학교는 상해시 외곽에 위치하여 드넓은 교지 위에 123개의 교실 및 특별실,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음향설비 및 조명시설이 완비된 강당, 22,000권의 장서와 80석의 열람실을 갖춘 도서관, 12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최신형 컴퓨터로 꾸며진 두 개의 컴퓨터 학습실과 30여대의 빔프로젝터, 멀티미디어 활용학습이 완벽한 교실 등 해외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한 교사진들이

중국사람들 중에서도 상해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 꼭 ‘상해’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상해는 중국내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고 일찍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29개나 되는

재외한국학교 중에서도 상해한국학교에 지원하려는 교사가 가장 많은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본교에는 현재 120여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3명은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교사이고 90여명이 한국인 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인교사 중 60여명이 전국에서 선발되어 오신 교사들이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채용된 교사 및 강사들입니다. 국내초빙의 경우 고용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용휴직이 가능하고 계약만료 후 바로 복직이 가능하므로 지원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채용교사의 경우도 고용휴직 및 복직이 가능합니다. 우수하고 적극적이며 재외국민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교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3. 인성학교의 뜻을 이어 글로벌 인재육성에 힘쓰고

민족교육을 통하여 민족정신과 민족역량을 배양하여 완전한 민주시민 양성에 힘쓰고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의 자녀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1917년 2월 개교한 인성학교가 우여곡절을 겪다 1981년 2월 폐교하자, 1999년 9월 뜻있는 한인들이 상해한국학교를 개교하였고 2006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및 많은 교민들의 도움으로 현재의 교사로 신축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인성학교가 민족교육에 힘썼다면 상해한국학교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려 글로벌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해한국학교는 전인 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영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탄탄한 국어실력 위에 영어, 중국어강화를 위해 10명 내외의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기초반의 경우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가 팀티칭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영어공인성적과 한어수평고시 급수 향상을 위한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영어페스티벌, 중국어예술제 등 각종 외국어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기초 및 심화 과정에 의한 개인별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입학할 허가하고, 입학 후에도 꾸준한 개인별 맞춤 진로 및 진학 지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국내외 유명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와 전주교대 교육실습 및 경인교대 멘토링 등 국내 교육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정보를 주고 받으며 매주 2시간씩 선후배끼리 학습멘토링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정서함양을 위해 국내외 유명 인사 초청 강연, 입시설명회, 학교축제(인성제), 다양한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해한국학교는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실력 향상을 통해 재외국민교육의 선봉에 서서 명실상부한 국제학교로 발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4.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뚝서서

재외 국민들 자녀 중 상당수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상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아주 드문 가운데 상해한국학교는 2006년부터 2개반(초중등 12명)의 특수학급을 운영하여 그 동안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부 봉사단 학생들이 상해시 민행구의 양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도우미역할 및 공연활동을 통해서 주재국 국민들에게 나눔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내몽고 지방의 사막화로 인한 황사현상 및 물부족사태 해소를 위한 지원단체인 Roots & Shoots(국제환경단체)에 가입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등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기본 인성 함양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5. 상해한국학교는 나날이 발전하리라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의 교류를 위해 방학 중에 기숙사를 개방하여 어학 및 문화탐방 기획, 교사 현직 연수, 해외연수, 실적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자질 향상 도모, 1학생 2특기 교육 강화(예능분야, 체육분야), 현지 적응 교육강화를 통한 차세대 중국전문가 육성, 특례입시 준비, 중국내 국제학교와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 모국 방문 체험학습, 해외 한국학교와 교류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해한국학교는 자랑스러운 세계인 양성에 매진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연극수업으로 창의 쑥쑥! 감성 쑥쑥!



김 정 숙
창원 내동초등학교 교장



01



02



03

- 01 학부모초청공개수업-역할극 2학년
- 02 '우리는 하나다'-5학년 몸짓놀이
- 03 동료장학 공개수업 지이통찰-3학년

I. 들어가며

나를 표현하고 서로의 느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감성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창의성이 가득한 교실의 색깔은 어떨까요? 알록달록 스스로를 환하게 밝히는 무지개 빛일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왁자지껄 소란스럽다가도 서로 힘을 모아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교실, 친구들과 선생님의 이야기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창의 쑥쑥! 감성 쑥쑥! 교실을 만들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교육연극을 통한 생각 가꾸기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 교육과정 분석, 교육연극 프로그램 운영, 교육연극을 활용한 수업지도안 작성 및 동료수업 공개, 학부모초청 공개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II. 이렇게 실천했어요

어린이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연극수업으로 아동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인성의 고른 발달과 창의력 및 자유로운 자기 표현력 신장 등 전인적인 성장을 도우며, 잠재 능력을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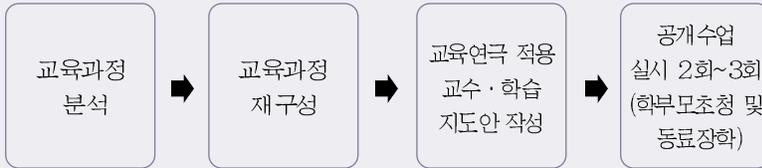
가. 몸짓 놀이로 창의쑥쑥! 생각쑥쑥!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년별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교육연극 적용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몸짓 놀이로 창의쑥쑥! 생각쑥쑥!(3학년 프로그램)		
목표	주요 내용	교과
감정 찾아 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찾기 ● 다양한 감정을 대화로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만날 수 있다. ● 과자는 새우깡이 최고야! ● 단순한 대사를 여러 가지 감정에 의해서 표현해 봄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감정 표현을 이해한다. 	말하기-국어 (준비물: 종이, 매직-모둠활동)
감정 표현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난 감정의 가면 만들기 ● 자신의 감정을 가면이라는 안전한 도구를 이용해 표출한다. ● 감정 표현하기 ● 가면을 통해 자신의 화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역할 연기를 해 봄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이 정화되는 체험을 한다. 	미술 (8절 두꺼운 종이, 크레파스, 가위, 고무밴드)

나. 교육연극을 활용한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동료장학 공개수업 실시

교육연극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년별 교육연극 프로그램을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동료장학 공개수업과 학부모초청공개수업을 통해 선보였습니다.(전교원 2회~3회)

다. 교육연극 활용 수업을 하고 나서

연극 놀이를 하고나서 수업 소감을 적어 학생의 느낌에 교사의 수업을 피드백하여 더 나은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감문을 작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

2009학년도 11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우수한 점으로 교육연극 활용 수업을 꼽아 주었고 학생 설문에서도 교육연극 활용 수업만족도에서 만족 이상이 65%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04 교육연극프로그램 '조각상' -4학년

05 '우리는 하나다' 몸짓놀이-4학년

06 '관계역동' -5학년

III. 맺으며

교육 연극을 통한 수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상상력과 창의성, 협동심과 발표력 등이 신장되었으며,
- 둘째, 함께 몸짓을 만들고 역할극을 하면서 애정과 감정의 표현 방법을 익혀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두터워졌고 연극놀이를 하면서 저절로 열린 마음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사이가 매우 친근하게 되었습니다.
- 셋째, 학년별 연극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극이 대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창작해나가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흔히 타인과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교 전교생 모두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 연극 활용 수업을 통해 상상과 창작 본능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감수성과 창의성을 신장시켜 우리학교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 수학으로 생각을 열어요!



장인환

산청 단성초등학교 교장



01

I. 이렇게 시작했어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학교혁신, 학교변화란 이름으로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신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어 학력 신장에 대한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교 학생들은 암기나 문제풀이 위주의 수학 수업으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학적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 개념이나 원리를 발견하여 문제 해결전략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상해 보는 추론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학적 힘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II. 생각들을 하나하나 펼쳐요.

1. '생활에서 알아보기' 재구성 및 자료 개발

가. '생활에서 알아보기' 재구성

교과서 매 차시마다 '생활에서 알아보기' 첫 활동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하지만 계절에 맞지 않거나 교실에서 쉽게 활동하기 힘든 경우,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것이 분석 결과 40%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학교와 지역,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생활에서 알아보기'를 재구성하였다.

나. 자료 개발

'생활에서 알아보기'를 분석하여 재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면서 학생들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장면들은 동영상이나 사진자료로,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구체물로 자료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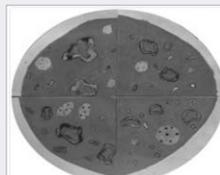
02

01 플리드론을 이용한 정다면체만들기

02 프랙탈 도형 만들기



주사위



피자



달력

2. 다양한 수학적 체험활동

가. 놀면서 배우는 행복한 수학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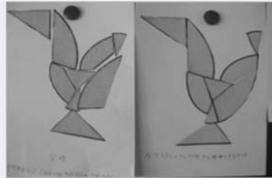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학적 놀이(패턴블럭, 탱그램, 4D 프레임, 마방진 등)를 통하여 수학을 좀 더 친근감있고 흥미로운 수학이 되도록 활동을 하였으며 창의력 수학활동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



테셀레이션



4D프레임



요술달걀

나. 수학퀴즈대회

off-line에서 수학퀴즈모금함에 수학퀴즈 문제를 풀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였고, on-line에서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수학퀴즈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 수학캠프 운영

9월 24일 4~6학년들을 대상으로 '폴리드론을 이용한 정다면체 만들기'와 '프랙탈도형 만들기'로 수학캠프를 운영하였다. 평면에서의 도형과 공간 속 정다면체를 만들어보면서 학생들의 흥미뿐만 아니라 사고를 확장시켰다. 또한 A4용지를 가위로 한번씩 자를 때 마다 나타나는 도형들을 보면서 신기해하며 탄성을 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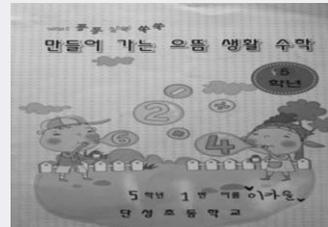
3. 수학적 힘 기르기

가. 만들어 가는 으뜸 생활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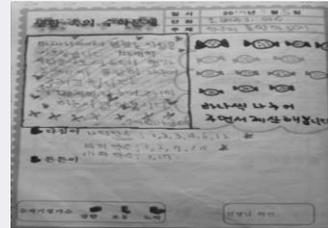
생활 중심의 수학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내고 풀어보는 수학공책인 '만들어 가는 으뜸 생활 수학'을 만들어서 활용하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시장이나 가게 또는 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수학적 문제들을 학생 스스로 만들게 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 창의력을 종합적으로 키울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주변에 대한 문제를 만들다 보니 쉽게 문제를 만들 수 있고 해결할 수도 있어 수학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03



04



03 만들어 가는 으뜸 생활 수학 공책

04 학생 활동 사진

나. 방과후 교육활동 수학 공책 구안 및 활용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중 부진학생들에게 기초와 기본학습이 되는 기본 원리나 개념,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3~4학년 학생들에게는 ‘재미있는 수학’으로 5~6학년 학생들에게는 ‘차근차근 한걸음’을 구안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부진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다보니까 진급평가와 기초학습부진 재평가 결과, 학생들의 기초와 교과부진학생들이 구제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수학적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05



III.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가. 암기식이나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 수학에 관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그 개념이나 원리를 익혀 수학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문제해결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향상 되었다.

나. 기초학습 및 교과학습 부진학생들이 수학을 어렵고 싫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활 속 수학 학습을 꾸준히 한 결과,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어 자신감이 많이 길러졌다.

다. 다양한 수학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가 높아졌다.

라. 생활 속에서 수학적으로 문제를 찾고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수학적 힘이 길러졌다.

06



05 재미있는 수학 공책

06 차근차근 한걸음 공책

중앙 SWEET프로그램과 함께하는 행복한 방과후학교



김인호

거제중앙초등학교 교장

1. 중앙 SWEET프로그램이란?

『중앙 SWEET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 운영의 핵심프로그램인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Support)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습부진학생, 다문화 가정을 위한 희망(Wish)프로그램,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성장(Expectation)프로그램, 학부모, 지역민을 위한 나눔(Education for the locals)프로그램에 다함께(Together) 참여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의미로 중앙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용어이다.

2. 중앙 SWEET프로그램의 운영

가.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Support)프로그램

보육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정의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보육기능은 물론 소질과 특기신장, 보충학습, 인성지도를 겸하며 보육기능 강화를 위하여 21시 까지 맡아 돌볼 수 있는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

특별프로그램으로 영어, 한자, 미술 강좌에 담당강사를 두어 운영하였으며 보충학습, 특기교육, 인성지도 등은 보육교사가 맡아서 지도하였다.

인근의 식당과 공급계약을 맺고 저녁 급식을 하고 있으며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하거나 관리교사가 동행하여 귀가하도록 하였다.

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희망(Wish)프로그램

교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교육프로그램, 엄마폼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을 통하여 적응능력을 키우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기위하여 명절체험, 우리고장 탐방 등의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01



02



03



01 독서활동

02 특별강좌(영어교실)

03 보충학습 활동

2) 엄마표 멘토링

방과후 관리가 요구되는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멘토를 연결하여 학습지도, 인성지도, 상담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주 3회 2시간씩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다양한 지도가 이루어졌다.

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성장(Expectation)프로그램

1)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22개 강좌 51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학력향상을 위한 수학과 영어강좌를 개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와 아동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2) 토요일업일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

토요일업일에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의 흥미와 성취욕구 해소, 건강체력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

5개 강좌 11개 반을 운영, 391명이 참여하였다.



04



05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동 모습

토요일업일 프로그램 활동 모습



06

라. 학부모, 지역민을 위한 나눔(Education for the locals)프로그램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은 지역의 특성상 학부모 및 지역민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학교가 지역문화의 센터로서 역할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였다.

수강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학부모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하였다. 보다 많은 학습기회 부여를 위하여 1, 2기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주당 1~2시간, 10주간 운영하여 200여명의 학부모 및 지역민이 참여하였다.



종이공예

신기한 꽃누르미 압화

예쁜 손글씨 POP

서예

- 04 한국문화 체험송편빚기
- 05 내 고장 탐사활동
- 06 엄마표 멘토링

3. 중앙 SWEET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가. 학생들의 학력정착과 안정된 보육활동이 이루어졌고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제해결, 학교생활, 보충학습 등에 도움을 줌

나.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 참여는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주었고 사교육비 경감으로 인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음

다. 토요일업일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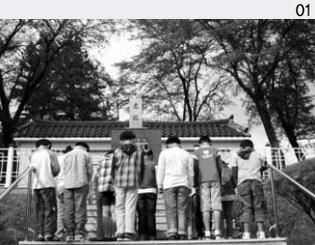
라.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방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은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허브로 학교의 위상을 높임

앞으로 중앙 SWEET프로그램을 정착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즐겁고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고 학부모 및 지역민에게는 학교가 지역문화의 센터로 더욱 확고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몸튼튼! 마음튼튼! 의령어린이



김 영 술
의령초등학교 교장



01



02



03

1. 들어가며

요즘 학생들은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약해지는 외화내빈의 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생은 신체적 욕구가 왕성하고 외형적 성장과 내면적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신체적 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체력향상을 위한 신체활동이 절실한 시기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정해진 체육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며, 본교에서는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활기찬 학교분위기 조성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2. 펼치며

체력증진활동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친숙하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평소에 자주 접하는 주변 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첫째,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산과 유적지를 이용하였다.

둘째,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비만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 뒤 봉무산 체육공원 및 충훈탑을 이용하여 체력증진과 충효교육을 연계하였다.

가. 우리 고장 산 오르기

1) 시기 : 매년 4월 연 1회 실시 2) 대상 : 전교생 3) 활동내용

학년	내 용	비고
1, 2학년	충익사 참배 - 수월사 - 남산오르기	조별활동, 환경정화활동
3, 4학년	충익사 참배 - 잠행 - 구급법실습 - 남산오르기	조별활동, 환경정화활동
5, 6학년	충익사 참배 - 잠행 - 구급법실습 - 남산일주	조별활동, 환경정화활동

4) 효과

- 인내심과 극기력을 기르고 협동정신과 봉사정신을 함양
- 우리 고장의 산야를 둘러보며 자연의 소중함과 애향심 고취

- 01 충훈탑에서 묵념
- 02 계단오르기
- 03 체력시설이용

나. 어린이 건강교실

1) 시기 : 매주 화, 목요일 14:00~15:00

2) 대상 : 3~6학년 과체중이상 비만아동

3) 활동내용 및 효과

- 보건소 운동처방사가 직접 와서 놀이, 미니축구, 게임, 스트레칭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실시하여 체질량 지수(BMI) 및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방과 후 체력활동

1) 목적 : 학교 뒤 봉무산 체육공원(높이 약150m, 윗몸 일으키기대 외8종) 및 층훈탑을 이용하여 체력향상과 충효교육을 겸하여 건강한 심신을 기른다.

2) 시기 및 대상 : 방과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월 2회 실시

3) 활동내용

- 층훈탑에서 묵념 - 준비체조 - 봉무산 계단 오르기 - 운동시설을 이용한 체력단련 -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배우기 - 정리체조

라. 스포츠 클럽 활동

1) 목적 :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포츠 클럽 참여를 통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도록 하고, 비만을 예방하며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도록 한다.

2) 시기 및 대상 : 클럽 회장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모든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3) 활동내용

스포츠명	축구	건강줄넘기	정구	육상	수영	농구
클럽명	풋볼이	건강클럽	포백나이스	체력지킴이	물살이	덩크슛
장소	교내운동장	교내체육관	교내정구장	교내운동장	의령수영장	교내체육관

3. 맺으며

학생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학교와 교사의 작은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바라는 인재는 학력만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더불어 바른 인성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한 신체도 갖춰야 한다.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남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정구부 우승 및 준우승, 경상남도교육감배 동아리농구대회 3위, 2009학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선정 체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올해도 내년에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 항상 밝고 올바른 의령 어린이로 자라길 기대해 본다.

04



05



04 의령초 정구부

05 동아리농구대회참가

Samsung Volunteering Geoje 와 함께한 “Let's know the World”



손 정 충

거제 성포중학교 교감



01



02



03

성포중학교와 삼성 전주-선급 봉사단체인 Volunteering-Geoje는 결연식을 맺어 매년 분기마다 1회씩 “Let's know the Worl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삼성 전주-선급 봉사단체와 함께 실시되는 “Let's know the World” 프로그램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미국, 호주, 영국, 그리스,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60여명의 원어민이 방문하여 각국의 역사, 문화, 경제, 관광, 사회적인 제반사항과 음식문화 등에 대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알 수 있게 기획되었다. “Let's know the World”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학생들의 세계를 보는 안목도 넓어지고 다른 문화 비교 체험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이런 행사를 통하여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1. 준비사항

- 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의실 좌석을 ‘U’ 형태로 배치한다.
- 나. 각 나라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각 나라의 원어민에게 질문할 내용을 전지에 기록하여 칠판에 부착해 놓는다.
- 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Let's know the World”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목적을 설명하고 준비사항을 공지한다.
- 라. 담임교사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학생들이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 마. 원어민이 준비한 PPT자료와 동영상자료를 학급별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다.
- 바. 각 반별로 원어민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5~6개를 준비한다.

2. “Let's know the World” 프로그램

일시	시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장소
2009.12.19 (토)	10:30 ~ 11:15	세계를 알자	그리스, 인도,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호주	각 반 교실
	11:25 ~ 12:00	팝송대회	각반별로 1팀씩 참가	체육관
	12:00 ~ 12:20	소감문 작성	“Let's know the World”	체육관
	12:20 ~ 12:30		시상식	체육관

01 삼성 전주-선급봉사단체와 함께

02 세계를 알자미국편 활동장면

03 세계를 알자인도편 장면

3. 프로그램 운영

가. 세계를 알자 프로그램 운영

학반	프로그램 국가	방 법
1-1	그리스	학생들은 학반별로 주어진 나라에 대해 미리 공부하여 각 나라의 원어민에게 질문할 내용을 A1 전지에 기록하여 칠판에 부착해 놓는다. 원어민은 질문지에 기록된 질문의 내용을 PPT 자료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이야기 한다.
1-2	인도	
2-1	미국	
2-2	영국	
3-1	말레이시아	
3-2	호주	

나. 학급별 팝송대회

학반	참여 학생	곡명	가수	시상
1-1	이유현, 김진희, 김현진, 하연희	Upside Down	a Teens	최우수 1팀
1-2	김민정, 문소희, 박강리, 신별, 이봄	Jingle Bell Rock	Grils Aloud	5만원의 상품권
2-1	천예린	Lucky	Briney Spears	우수 2팀 3만원의 상품권
2-2	이정하, 조승현	In love with you	Regine Vehsquez	
3-2	이중오, 이준혁, 이재익	My love	Westlife	

다. "Let's know the World" 소감문 작성

◆ Let's know the World 소감문 ◆				
성포중학교	제	학년	반	번
프로그램 일시	2009년 12월 19일		나라명	
프로그램 장소				
1. 자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나라의 이름은? 2. 그 나라를 소개해 주신 분들의 성함은? 3.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여러분이 그 나라에 대해 궁금했던 점은? 4.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질문한 것은? 5. 그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은? 6. 그 나라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7.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가장 다른 문화적 차이점은? 8. 그 나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9.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한국의 문화는? 10. 더 멋진 "Let's know the World"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점은?				

4. 기대 효과

세계는 점점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어 우리 학생들은 세계가 하나인 지구촌에서 미래를 살아갈 것이다. 삼성과 함께한 "Let's know the World"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받은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외국인을 만나고 외국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적은 본교 학생들이 세계를 보는 안목을 보다 넓히고, 뜻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04



05



06



04 영어 팝송 경연대회(1-2반)

05 영어 팝송 경연대회(3-2반)

06 영어 팝송 인터뷰 장면



사랑하는 섬마을 할머니 제자님들께



김혜영

통영한산초등학교비전분교장 교사

어제 원년이 할머니께서 입고 오신 두꺼운 조끼를 보니 섬마을의 겨울날씨가 춥기는 추운가 봅니다. 할머니들을 날마다 보면서도 막상 편지를 쓰려니 새삼스럽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할머니들 읽기 숙제랍니다. 이제까지의 숙제 중에서 제일 어려울 거예요. 제가 쉬운 글자만 골라서 쓰려고 해도 자꾸만 어려운 받침이 들어갑니다. 꼭 참고 천천히 읽어 보세요. 어려운 글자는 나중에 다시 읽어 드릴게요.

할머니들께서는 처음에 “나이 팔십에 이제 죽을 날만 남았는데 글자는 배워서 뭐하노?” 라고 하셨지요?

“할머니 혹시 죽어서 저승가면 문 앞에 천당, 지옥 써 놓고 찾아가라고 하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천당인지 찾을 수는 있어야지요.”

“아이고, 그래? 그라모 큰일인데. 그럼 함 해 보입시다.” 그렇게 우리 비진도 섬마을 분교의 야간 한글학교는 시작을 했습니다. 연세가 제일 많으신 원년이 할머니께서 반장, 제가 없을 때 경로당 벽에 써 둔 한글표를 가르치는 한순이 할머니를 작은 선생님이로 정했습니다. ‘아’, ‘야’, ‘어’, ‘여’로 시작하는 모음 열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10년 넘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동안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만 글자를 가르치는 과정이 이렇게 즐거운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자음 모음 기본자만 가지고도 3개월을 넘게 공부했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늙은 학생들이 머리가 굳어서 잘 안 된다고, 머리에 박힌 게 박히기만 하고 돌아서 안나온다고 부러 짜증도 냅니다. 그 짜증이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이 미우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경로당 학생 모두가 배를 잡고 웃으시길래 저만 멀뚱멀뚱했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그래도 예뻐해 줘. 와- 바람피나? 때리나? 노름하나? 아니제. 그럼 잘 하는기라. 우리는 우찌 이 세상을 살았는데?” 하셨습니다. ‘한참 젊고 세상 좋는데 싸우면 뭐하냐’는 말에 저도 기분을 확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른으로서 저를 가르치실 때는 다정다감한 반말을 하시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반장 할머니의 ‘차렷’, ‘경례’와 함께 깎듯이 선생

님이라 부르실 때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어야 할 텐데 싶어서요.

처음에는 모두들 제 앞에서 정말 어려워 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글자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시절을 잘 못 타고나서 그렇다고 큰 소리 쳐가며 학생들을 모아준 원년이 할머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처음 ‘사다리’ 글자를 배우고 사다리 그림을 보면서 ‘새더리’ 라고 썼던 명연이 할머니도 그동안 숙제 해 오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닷가 물때가 되어도 수업이 있는 날에는 조개 파러 가지 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꼭 양말 신으시고 머리 빗고 경로당으로 등교해 주시는 마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쟁 통에 피난 가느라, 동생 업어 키우느라, 딸이라고 절대로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한 부모님들 때문에 글자를 못 배운 사연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모음 ‘ㅑ’와 ‘ㅓ’를 마음대로 구분하지 못해 속상하다며 통곡하던 연이할머니 집에 전기세 영수증이 나와도 무슨 영수증인지 몰라 학교로 또는 이장님께 들고와서 묻는 한순이 할머니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시내병원에 가실 때 무슨 병원인지 간판을 보고 찾아 가실 수 있게만 하겠다던 게 제 목표였는데 지난주에는 텔레비전의 트롯트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타박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 기분이 하늘을 날 듯 했습니다. 이제 겨우 받침글자 몇 개 배웠을 뿐인데…….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저를 가장 많이 가르쳐주신 훌륭한 제자들이십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학생을 만나 가르칠 복을 또 받겠습니까? 직접 손주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게 제가 할머니들께 내려고 한 마지막 숙제였는데 겨울방학이 끝나면 저의 분교 근무 임기도 끝나기에 다 이루지 못할 것 같아 요즘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따라 오신 것만 해도 아주 잘 하신 거니까요. 숫자도 좀 배웠으니 올 겨울방학만 지나면 발에서 난 시금치 택배 상자에 싸실 때 몇 단인지 상자에 써 보시고 이름도 직접 써 넣어서 농협에 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겨울방학 동안 존경스러운 학생들께 더 사랑스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저에게도 멋진 편지 한통씩 보내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건강한 모습만 뵙고 싶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비진분교 야간학교 담임 김혜영 올림



한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축복받고 행복한 것입니다



황 사 철

마산 내서초등학교 교장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 1991년 한국인에 의해 설립, UN 공인 비정부 국제 기구 NGO)의 교육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경남지역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 13분이 본부스텝 3명과 함께, 지난 11월 16일부터 5박 6일간, 글로벌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굿네이버스의 제 3세계 해외 사업장(아시아, 아프리카, 북한) 중에서 방글라데시를, 대구·경북·울산팀 18명은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방문단 모두가 하신 말씀이 “한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축복받고 행복한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은, 굿네이버스가 해마다 많은 학교의 학생들을 통하여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펼쳐서 모은 성금과, 또 많은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성금으로 국내 결식아동을 돕기도 하고, 북한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후진국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방글라데시 교육현장과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둘러보고, 우리들의 성금이 올바르게 잘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지 체험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 방문 체험을 하게 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 것이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써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유명 관광자원도 없고 자원도 부족하여 못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가는 직항기가 없어, 방콕으로 가서 9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방글라데시로 갔다가, 돌아올 때에도 방콕으로 나와서 6시간이나 기다리다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후진국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화장실에는 냄새가 심했고, 자동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든지,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하는데 컴퓨터에 독수리타법으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1시간이나 넘게 기다리면서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로써는 안타까울 정도였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쇠울타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랑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어귀부터 세발자전거(릭사)가 손님을 기다리며 무질서하게 서 있고, 오토바이를 개조해 손님을 태우는 베이비택시라고 하는 세발오토바이, 버스는 폐차장에 보내야 할 정도로 굵히고 찌그러졌으며 깨진 유리창에 남자 차장들이 출입문에 매달리고, 버스 지붕 위에도 손님을 태우고 무질서하게 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낯설고 놀랄 정도였다.

인구는 많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 돈도 벌지 못하고 빈둥빈둥 놓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보였으며, 길거리에서 배고파 구걸을 하는 어린이랑 여자들, 장애인들도 자주 보이며 우리 일행 중에 그들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주다가 안내하시는 분에게 크게 제지를 당하곤 했다. 돈을 주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두 곳을 방문했는데, 시골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창고같이 대나무나 함석판으로 벽과 지붕을 만들고, 집 안에는 땅바닥에 대나무로 침대를 엮어 그 위에 살림도구를 엮거나 걸치고 사는 모습이었는데 잠자리나 주방 등이 구분없이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1년 내내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추위가 없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읍·면지역 중심지 같은 인구 25만여 명의 카타일 시골 학교는, 교실 두 칸 크기의 창고같은 건물 1동과 5칸짜리 2층 건물 10칸의 교실에서 3부제로 1학년부터 7학년까지 500여명의 학생들이 기다란 탁자를 책상으로, 긴 의자에 여럿이 앉아 공부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수 있어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

수도 다카의 빈민촌에 4층 건물을 세내어 운영하고 있는 밀뿔학교에서는, 교복같은 푸른색 조끼를 입고 가방이 없어 책이랑 공책들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 아이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악수를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낡고 오래된 방 몇 칸을 세내어 부모들이 직장에 가고 없는 낮 동안에 2살부터 3살, 4살짜리 꼬마들을 방 가득 모아놓고 돌보아주고 있는 모자보건센터에는, 우리들을 보고 낯을 가리지도 않고 안아달라고 보치며 우는 꼬마들을 봤을 때, 조상이나 부모를 잘못 만나 좋지 못한 환경에서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다 혹 모기에 물리거나 설사병에 걸려 힘없이 죽어가는 어린이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으로 불쌍하고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쌍한 그들에게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정성으로 모은 사랑의 동전으로 사랑이랑 학용품 등을 제공하며 공부시켜주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척 자랑스러웠다.

한편 다카시내의 잘 사는 동네나 직업 군인들의 아파트는 좋은 빌라로, 1층의 주차장



에는 좋은 외제 승용차들이 있고, 개인 경비원들이 입구를 지키는 모습과, 모든 창문에는 도둑을 막기 위해 안쪽에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어른 평균 체중이 45kg이고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된다고 하였다.

도시 변두리에 오래된 봉제공장과 벽돌공장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많은 젊은이들과 여자들이 도시락 통을 들고 활기차게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갠지스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낮고 물이 많으며, 잦은 홍수 때문에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도 없고 또 산이 없고 돌도 귀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많이 쓰이는 자갈 대신에 벽돌을 깨서 돈을 버는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돌아오는 날에 국립 마호메트 성당과 힌두교 사원 그리고 다카 대학교를 둘러보면서, 그들이 못살고 후진국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기후와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처지를 알라신의 뜻으로만 알고 오로지 알라신만이 그들을 지켜주고 먹여주며 운명을 결정지어 준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족 계획을 세워 자녀수를 줄이고, 지혜를 모아 홍수를 막으며, 독을 세워 기름진 평야에서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노력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라신의 뜻에 맡기고 노력하지 않는 국민성 때문에 언제 잘 살게 될지 걱정스러웠다. 당장이라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본받아서 잘살아보자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신앙심이 너무 투철해서인지 쉽게 의식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문맹율이 높고 TV 등 정보매체의 보급률도 낮아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오로지 알라신의 섭리로 그들이 행복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불쌍하기만 하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야학을 운영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등 잘 살아보려는 모습도 엿보였다. 특히 정부의 정책보다는 세계 선진 각국의 많은 NGO 단체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곳곳에서 신식 학교 설립과 교육봉사, 농장 경영, 영농기술 도입,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마침 다카대학교의 경영학과 입학시험 날이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열기를 보았을 때,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여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밝은 표정들이 있어 장래가 어둡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리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한국의 지원과, 그들 현지 지도자들의 노력과 봉사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으며, 우리 코리안을 반갑게 맞이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6·25사변 이후 1950~60년대의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보았다.

한비아님의 책과 활동영상 등을 통해 우리의 도움이 세계 도처의 어려운 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다행이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세계 시민교육과 국제 이해교육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올바른 세계관을 소유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경험시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카타일학교의 3,4학년 183명 학생들과 체육행사를 마치고 본관앞에서 기념촬영



다카시내 밀볼학교에서 2,3,4학년과 풍선아트 수업을 마치고 교문앞에서 기념촬영



밀볼의 모자보건센터 아이들



카타일 학생의 가정방문-생필품 돕기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



노 정 숙

창원 남양초등학교 학부모

우리나라는 석유 한방울 안나는 에너지 빈곤국가다. 그러면서 냉난방용 전기와 기름을 엄청나게 쓴다.

그런데 며칠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TV에 한 가정이 나왔는데 아파트 안에서 가족들이 반바지와 반팔 차림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한겨울에 반바지 차림으로 생활하려면 실내온도가 26도 이상은 올라야 하고, 그만큼 되려면 난방을 엄청 해야 하는데 그 집은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건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 한방울 안나는 에너지 빈곤 국가 국민으로서 올바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본 에너지 절약습관 길러주기 교육법 사례다.

도쿄 가와사키시에 있는 신초초등학교를 갔었다. 여기에서는 교실에서 에너지를 쓰면 자동으로 눈금이 움직이는 계측기를 복도 한켠에 달아놓고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에너지 절약에 대해 자각하게 하고 있었다.

이 계측 표시판에는 1년전에 사용한 계측표시 그래프가 따로 있고 그 옆에는 현재 지날달까지 사용한 양이 표시가 되어 작년 이맘때 사용한 양과 금년도에 사용한 양을 비교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같은 기간인데도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이 썼을 경우 왜 그랬는지 서로 확인해보고 다음에는 아껴쓰자는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복도의 형광등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불이 꺼져 어둑어둑했다.

그리고 1~2학년같은 저학년들에게는 이 수치를 직접 가져다 수학공부에 응용해 작년의 어떤 달보다 금년의 어떤 달이 더 많이 썼는데 그 차이는 얼마인지, 예를 들어 작년에 90만큼 썼는데 금년에는 100만큼 썼다면 다음 달에는 얼마를 덜 써야 작년의 수준과 맞출 수 있는지 등 이런 형태로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가르친다. 우선 양치질할 때 물을 틀어놓는 버릇이 없어졌다. 내가 아이들 3남매에게 물과 전기를 아껴써서 수도세와 전기세가 줄면 그만큼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목욕할 때 물장구치며 물을 낭비하거나 방마다 불 켜놓는 일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수도세는 20%정도, 전기요금도 한달에 4000원 정도가 줄었다.

또 A4 용지 뒷장은 반드시 연습장으로 재활용한다. 내가 최종적으로 쓰레기통을 비우기 전 반드시 검사를 하기 때문이다. 큰애가 얼마전 거실에서 TV를 보다 그냥 켜 채 새벽까지 잠이 들었다가 한 달 용돈 2만원 중 4000원을 깎이기도 했다.

집 안방, 거실, 아이들 방 세곳에는 온도계가 1개씩 달려있다. 실내기온이 18℃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난방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여름철 동안은 선풍기 없이 거실에 놓은 어항을 통해 실내 공기 온도를 조절토록 해 더위를 식혔다.

또 세숫물의 양은 3분의 2로 줄이고, 세수를 한 물은 발 씻는 물로, 발 씻었던 물은 화장실 변기용으로 재활용한다. 세탁기 뚜껑에는 '절전:마음의 풍요'란 문구를 적어놓았으며 냉장고는 항상 3분의 2만 채운다. 훨씬 경제적이며 가정경제도 살릴 수 있다.

며칠전 TV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충격적인 방송을 했다. 수영에 관한 한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북극곰이 익사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북극곰이 익사하는 이유가 충격 그 자체였다. 곰은 북극해에서 수영을 하다가 유빙에 올라타 잠시 쉬기도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유빙이 죄다 녹아버려 유빙만 믿고 바다 멀리까지 헤엄쳐 갔던 북극곰은 결국 헤엄치다가 지쳐서 익사를 하고 만다는 내용이었다.

이 놀라운 사실의 바탕은 지구 온난화이고, 그것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량과 정비례 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 모두와 자녀들이 중요하게 배우고 생각해야 할 일이다.

내가 조금만 신경쓰면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 모두 학생 자녀들에게 스스로 체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교육법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점심시간

강 소 혜

진주 망경초등학교 6학년

나는 점심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병원에서 일하고 계실 우리 엄마가 떠오른다. 밥을 먹기 전에 “손 깨끗이 씻고 오너라, 우리 이제 밥먹자.”라는 엄마의 따뜻한 포근한 말씀이 잠깐 그림다. 콩밥이라고, 반찬이 없다고 투정부릴 수 있는 엄마가 없는 게 허전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매일 다양한 밥과 반찬이 나올 때마다 즐겁고, 신이 나며 살짝 기대도 된다.

점심시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인 것 같다. 학교에 와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1시간의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면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핀다. 엄마 얼굴을 떠올리며 맛있는 점심을 다 먹고 조금 남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밀린 학원숙제를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기도 한다.

또, 점심시간은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이자 고마운 존재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에는 내가 제일 아끼는 엄마의 얼굴도 떠오르게 해주고, 무서운 학원선생님의 얼굴도 가려주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종소리와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소리는 똑같으나 느낌과 기분은 모두 전혀 다르다.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종소리를 들으면 날개를 달고 훨~ 훨~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심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들릴 때쯤이면 시계 쪽으로 눈길이 돌아가고, 드디어 종이 치면 “아~”소리와 함께 아쉽고, 서운한 느낌이 든다. 그래도 난 점심시간이 정말 좋다. 하루에 하나뿐인 점심시간은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또,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다.

난 이젠, 하루라도 그런 소중한 점심시간이 없다면 하루가 재미없고, 아쉬운 하루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점심시간인 그 1시간이 하루 종일 나에게 큰 기쁨과 행복과 기대감을 준다는 게 참 고맙고, 좋은 시간인 것 같다. 24시간 중의 단 1시간인 점심시간이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이자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 것 같다. “점심시간아, 정말 고마워……”

제59회 개천예술제 학생백일장(2009. 10. 5.) 초등부 고학년 산문 장원



‘선생님 당신이 희망입니다.’를 읽고 (박선규지음 /미다스북스)



강 해 영
진주 주약초등학교 교장

우리학교에는 지난 시월의 마지막을 장식한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바로 제5회 진주교육장배 종합체육대회의 선전이다. 아슬아슬하게 위기의 순간을 헤쳐 내며 투혼을 불사르던 남·여 동아리 배구부의 동반 우승, 아파트 숲 속에 위치한 우리학교의 지역적 특성으로 과보호 속의 나약한 아이들이라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천하를 들었다 놔던 한 판 승 씨름 선수들……, 이러한 기쁨 뒤에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지도했던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있었다.

나는 종합체육대회의 선전을 보면서 교육의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교육전문직에서 보낸 오랜 세월보다 학교 현장의 생생한 체험과 희망을 곧바로 볼 수 있는 이곳의 근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아직도 공교육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근무하는 선생님이 있는 이곳, 우리학교에 와 볼 것을 권하며 아울러 교육가족이 함께 읽어 책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이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현직 교사가 아니다.

그래서 교단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의 생생한 체험을 교육과 접목하니 교사들에게 좀 더 힘을 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것 같아서 좋다. 욕심을 내자면 이 책을 읽어 교육공동체의 생각을 좁혀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장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생님과 결부시켜 교육계에 희망을 준 것이 무척이나 가슴 뿌듯하다. 저자는 전 장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교육적 관점과 연관 지어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제자사랑, 인재양성, 교사의 자긍심, 사교육문제 등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고 공감할 법한 예를 들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육적 문제들을 촌

철살인(寸鐵殺人)하여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책이 참여 정부 시대 즈음에 출간되어 시대에 좀 떨어지는 감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지난해부터 찾아온 경제난과 더불어 신종인플루엔자 대란 등 요즘의 혼란과 혼동, 교육적 관점과 연관 지어 읽는다면 짝조름한 감명이 올 듯하다.

또한 작가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데도 인재양성이 손꼽히고 그런 일등 공신이 선생님 임에도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교사들의 인식을 시원하게 질타한다. 교단이란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행복한 자리인지 이 책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이다. 선생님의 자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아하고 멋진 모습을 가진 백조이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미운오리새끼 속의 백조를 불평불만 가득한 선생님에 비유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교사에게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자부심은 교육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며 자부심이야말로 인재양성 아니 교육의 성패를 거머쥔 열쇠라고 믿기 때문이다.

어느 덧 교원평가라는 제도도 가시화되는가 보다. 누가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받을 수 있는가를 주장하기에 앞서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우리는 최고점을 받을 수 있을지 자체 점검을 해 볼 시기이다.

배가 부르다며, 고픈 배를 물로 대신 채우며 점심도시락을 건네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반딧불의 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선생님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었다. 그들은 이 책의 5부에서 거론되는 편 가르기의 위험에 편승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거창하고 추상적인 교육의 신화를 논하지는 더더욱 않았을 것이다. 오직 가르치는 그 일 하나에만 혼신을 다했을 것이다.

요즘 선생님!

그런 옛 선생님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희망은 커지지 않을까요?

학생생활지도, 학력 향상 등 교육과정의 충실 운영으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열정을 쏟는 우리 선생님이 바로 희망입니다.



『뜨거운 관심』을 읽고



조 창 발
마산 현동초등학교 교감

우리가 쏟고 있는 관심의 80%는 ‘차가운 관심’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받고 있는 관심이 ‘차가운 관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관심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친절과 배려,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심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심은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입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관심은 나의 기준이나 잣대를 버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와 마찰이 생기고 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0대 직장인 가정이 잘못된 관심으로 인한 인간관계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죽음을 앞 둔 아내의 유언장으로 인해 테레사 수녀를 만남으로 진정한 관심을 실천하여 점차 주위 사람들과의 얽힌 관계를 풀어 나가며 팀장으로서의 몫을 다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아내는 세상을 떠난다. 두둑한 보너스가 팀원들의 단결을 살 수 없었고, 매달 벌어들여 주는 월급봉투가 아내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었으며 부담스런 아버지의 관심이 자식을 방황하게 한다. 그 위에 ‘뜨거운 관심’이 더해지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 새 삶을 살아간다.

인간의 모든 성공은 타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서 비롯된다!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책!

이 책을 읽고 굳이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지 않더라도,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향기나는 서가 ●●●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소중한 사람과 더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다. 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부담스럽거나, 귀찮거나, 짜증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 봐야겠다.

‘뜨거운 관심’을 실천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이전 보다 조금만 더 따뜻하고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다가서는 것, 그래서 나와 내가 하나로 통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보거나 생각하기만 해도 착해지고 체내에서도 면역 물질이 생겨 생명력이 강해지는 테레사 효과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고 하니 하루에 단 몇 분만 소중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 사람을 지켜보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 그 사람을 생각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보는 것이다. 그 짧은 시간의 관심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배려로 표현될 것이며, 그것은 감사의 마음을 넘어 더 큰 감동으로 세상에 확산될 것이라 느껴진다.

- 차가운 관심을 뜨거운 관심으로 변화시키는 7가지 비결-

하나, 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 존중해주어야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다. 하물며 성인은 어떻겠는가.

둘,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

무엇이든 나의 마음을 전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일치시킬 수 있다.

셋,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일시적인 관심은 무관심보다 더 큰 상실감을 준다. 한두 번 존중하고 배려해주다가 참지 못해 포기하거나 관심을 꺼버리는 것은 상처만 남길 뿐이다.

넷, ‘그 사람’ 자체에 감사하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거나 무엇이 되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 곁에 존재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자체에 감사하라.

다섯,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라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만큼 배려해줄 수 있다.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으로 관찰을 실천하라.

여섯,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라

자신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아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겠는가. 행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다.

일곱, 그 사람을 격려하라

잘한 일에 대한 칭찬에 그치지 말라.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다치고 병들었을 때, 갈등을 겪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때, 격려만이 그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다.

소매물도

배에서 내려
문 닫은 학교도
등대 꽃 구절초도
등대 봉우리 망태봉도
공룡머리 공룡 바위도 지나치고
오르고 걷고 내려가고 올라가기만 했다.

부서지는 파도 거품과
시퍼런 바닷물을 만나 더 가지 못할 때까지.....

그제서야
구절초도 보이고
망태봉도 보이고
공룡 바위도 보이고
반짝이는 바다도 보였다.

소매물도는
돌아서는 등 뒤로,
가족, 연인, 자연과 함께 기다리는
시간 앞으로 젖은 몽돌 길을 열어 주었다.

거품을 밟고,
젖은 몽돌을 밟고
밝은 햇살을 닮은 몽돌을 밟아
역세 세상에 사는 하얀 등대를 만난다.



하 정 용

- 거제 외간초등학교 교사

부담이 줄어든 학교 교육, 엄마, 아빠 걱정도 줄었습니다!

부담이 줄어든 학교 교육,
 엄마, 아빠 걱정도 줄었습니다!

“ 대학 학자금 값을 걱정해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 조금 가벼워 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나라에서 직접 관리해 준다니 이제 걱정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뿐인가요?
 웬만한 교육은 학교에서 다 해결되니 가정경제도 활짝 필 것 같습니다. ”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비 지원으로
 나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의 재능을 보석처럼 펼칠 수 있는 나라
 내가 사는 대한민국 교육의 오늘입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없는 학교

교육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그 힘이 더 커지고 강해지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